

3040에게 열쇠를 주어라

3040에게 다가가기

3040의 심리: 외로운 세대

Z세대는 경제적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너선 하이츠(Jonathan Haidt)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Z세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사회적 고립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이츠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 혁신이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며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소셜 미디어에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이츠는 그 원인으로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지목합니다. 이 버튼이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며 점점 더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분리되고 고립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극단성을 피하려고 아날로그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이츠는 이 현상을 바벨탑 사건에 비유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면서 흩어진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그는 Z세대가 기술을 통해 언제나 연



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되고 분절된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세대라고 분석하며, 이를 ‘제2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츠는 2025년에 출간 예정인 그의 책 Life After Babel: Adapting to a World We Can No Longer Share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현재 그의 블로그에서 그 개요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언제나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고립되고 외로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미국의 종교학자 앨런스는 기존 종교에 관심이 없지만, 여전히 영적인 것에 끌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는 명칭을 제안했습니다. 흔히 SBNR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앨런스는 미국 내 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제도적 교회 밖에서 영적인 갈망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은 종교적(Religious)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적(Spiritual)이라는 단어로 더 잘 포착된다고 했죠. 현대인들이 영성(Spirituality)을 교회라는 공동체적 의미보다는 제도와 공동체 밖의 개인적 영역

에 더 중점을 두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가 교회 건물, 교리, 전통 등 공동체와 제도를 연상시킨다면, 영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월드’ ‘마음 수련’ ‘선 수행’ ‘요가’ ‘템플스테이’ ‘타로 카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최근 교회에서 많이 논의되는 ‘가나안 성도’ 현상 역시 SBNR 영성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면으로 계속)



문화 변증의 미래로 부상하는 레트로 (1)

최신 트렌드가 아닌 더 깊은 것에 뿌리를 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 문화 변증이 최신 트렌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상징주의로 가득 찬 영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금발 팝 아이 콘의 매력적인 곡과 그녀의 데이트 생활 등등에 관해 쓴 수많은 글을 살펴보자.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팝 스타덤의 본질에 대한 격렬한 논쟁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을 따라하는 열렬한 팬들로 넘치는 모든 콘서트는 말 그대로 매진 이벤트이다. 그녀를 개척자라고 칭찬하던 비평가들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부패한 영향력이라며 비난을 쏟아낸다. 한편으로 수많은 기독교 평론가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연일 그녀의 최신 히트곡을 분석하여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잠재적인 복음과의 연관성까지 찾기 위해

서 수많은 기사를 쓰고 있다.

잠깐, 혹시 내가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를 말하는 것 같은가? 아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1985년경의 마돈나이다. 오늘날 팝 스타처럼 마돈나는 한때 문화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녀의 작품을 둘러싼 주제였던 정체성, 반항, 삶의 의미 등에 대한 탐구는 오늘날 팝 문화 논쟁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단지 트렌드 파악에만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진실을 놓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그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깊은 영적 통찰력은 인간이 항상 접하는 의문을 다루는 진짜 작품에서 나온다. 즉 시간이라는 시험을 견뎌낸 고전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10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푸른초장
이성모 목사



4면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는
제임스 구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아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8.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책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2.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3. 논문제목: 현대교회 시대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하나 텍스트): 구약-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요한복음 12:27 제목/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שה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을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권혁천 목사
서기: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전통진 목사

시론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글 - 어떻게 읽을 것인가?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이기에 그의 작품을 대할 때 좀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영역들을 문학과 신학을 접했던 입장에서 찾아 봅니다.

1. 그는 수많은 작가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앞서는 진리는 ‘그 역시 죄로 감염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관점이 다 맞을 수도 없고, 그의 감성이 다른 사람의 깊이 숨은 생각을 다 뚫어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저자를 과대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표현과 구성의 능력을 가진 작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누가 나에게 불교에 대해 질문한다면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대답할 지적인 정보와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작은 부분에 불과한지 나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전체를 알지 못하니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부분이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강 작가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2. 결 다리 걸지말고 있는대로 그의 눈을 따라가 보라!

언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사람들은 갈등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설명합니다. 편파적인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가능한 작가가 글을 통해 말하는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읽는 것이 훨씬 더 작가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던진 말이나 단어 중의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판단하거나 비평하려면 자신이 뽑아낸 그 한 단어가 정말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로 그 단어였는지부터 냉철하게 점검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가 한강이 2017년 10월 7일 자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사용한 ‘대리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제법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해 일어난 대리전’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사실 그 기고문에서 작가는 한국전쟁 그 자체를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무차별적인 인간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나름대로 찾고 있으며, 그 대답으로 작가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동등한 개체로 보지 않고 하등한 개체로 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부터 모든 비인간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일어났음을 지적합니다. 작가는 대리전쟁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은 사실 ‘대리전’에 불과합니다.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은 뒤로 숨고 인간을 전쟁의 전면에 내세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을 하도록 만드는 ‘악의 세력’과 그 세력에 맞서 정당한 방어를 주장하며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오는 ‘선의 세력’의 대리전이라는 관점입니다. 같은 대리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용된 배경과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따라 끝까지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길입니다.

노벨상은 지구촌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노벨상을 받은 문학작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행간의 뜻을 찾아가며 읽음으로써 작가가 독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신앙인의 가을이 되기를 바라며, 살롱.

hankschoi@gmail.com

성경 낭독도 예배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낭독은 구약 시대와 신약시대에서만 아니라 교부 시대에도 일반적인 일이었다. 성경 낭독은 모세 시대 이후로 예배에서 중심 요소였다.

성경 낭독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낭독은 구약 시대와 신약시대에서만 아니라 교부 시대에도 일반적인 일이었다. 성경 낭독은 모세 시대 이후로 예배에서 중심 요소였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특히 성경을 낭독하는 일은 모세 오경에서 규범적인 관행이었다. 이런 관행은 유대교 예배의 토대가 되었고, 후에 기독교 예배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에서 기도, 성경 낭독, 강론도 유대교의 회당 양식이 반영된 것이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눅 4:14-30).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성경 낭독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버트 웨버는 “말씀 예전과 그것의 교훈적인 성향은 회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유대인이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회당에서 실행했던 것들을 기독교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경 낭독이 초대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딤후 4:13)고 부탁한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회당 예배에서 성경 낭독은 필수적이었지만 설교는 선택적이었다(브라이언 채플,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359)는 점이다. 기독교 예배는 많은 부분에서 유대교 예배 의식과 형태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 몇 세기 동안의 정규 예배에서 성경 낭독 계속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기독교 예배에서 더욱 강화되어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예배에서 정규적으로 구약에서 한 곳,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낭독하였다. 마지막 낭독은 언제나 복음서를 낭독하였고, 복음서를 낭독할 때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들었다.

초대 교회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성경 낭독자가 있었다. 성경

낭독자의 직책은 주후 200년부터 존재하였고, 소성직(minor orders)의 하나였으며, 주교에 의해 임명되었다. 적어도 4세기부터 1년을 주기로 성경 낭독과 설교를 위한 성구집(lectionary)이 있었다. 성구집은 공식 예배에서 낭독과 설교에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목록이다. 성구집은 교회와 수도원 예배에서 권위를 갖게 되었다. 교회 역사에서 말씀 예전으로서 성경 낭독은 중세 시대에 쇠퇴하였다. 하지만 종교 개혁 시대에는 부활하였다. 루터와 칼뱅과 츠빙글리와 같은 개혁자들은 예배에서 말씀 예전으로서 성경 낭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독교 예배 역사에서 설교만이 말씀 예전이 아니라 기도, 노래, 성경 낭독 등도 말씀 예전의 중요한 요소였다. 테리 존슨과 리곤 던컨은 예배에서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공동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였다. 설교를 위한 성경 봉독이 아니라 설교 본문과 다른 성경 본문을 낭독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회 예배는 설교는 중요하게 실행하고 있지만, 성경 낭독은 실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

한국 교회 예배에서 찬양과 설교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성경 낭독 시간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비록 예배에서 주로 시편으로 구성된 성경을 교독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말씀 예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성경 교독은 설교와 똑같이 중요하고 대등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도들이 설교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경향 때문에 성경적 예배를 설교 중심적 예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

은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이해해 왔다,

성경 낭독의 목적

기독교 예배의 기본 구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는 듣고 응답하는 구조이다. 예배에서 성경 낭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낭독의 목적을 듣는 것과 준행에 있다고 말한다(출 24:7).

예배에서 성경 낭독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성경을 낭독하는 이면에는 듣는 행위가 있고, 듣는 행위는 공동체 행위이다. 듣는 행위를 통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상호 간에 살아있는 관계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현하기 위해서다. 유진 피터슨은 성경의 기능을 이렇게 말한다. “책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는 우리가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저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그들의 주장들을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저자와 독자들이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책이다.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야기들을 비인격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왜곡하게 된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8-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 자녀가 하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직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강사 이훈구 장로 약력>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감사나눔 공동체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간증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일일 공개 세미나

금번 Dunamis Sophia University 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하여 교회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강사분들을 모시고 일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 귀중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 성경적 제자의 도 (Biblical Discipleship)

일시 2024년 11월 5일 (화) 9:30 AM - 4:10 PM

장소 새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강사 박성근 박사, 이순정 박사, 김정원 박사, 이윤호 박사

대상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연락처 714-732-3355 (D. S. U.)

등록 50명 제한 (등록비 무료 & 점심 제공)

주최 : Dunamis Sophia University



박성근 박사
새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순정 박사
미국 작은 불꽃 선교회 대표



김정원 박사
전 네비게이토 선교회 Staff
새언약 교회 담임 목사



이윤호 박사
두나미스 영성상담치유 연구원 원장

3040에게 열쇠를 주어라

〈1면에서 계속〉
단순히 윤리적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탈교회 현상이 아니라, 현대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종교의 공적인 역할이 세속화의 영향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더 이상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전통적인 종교가 제공하던 신비적 체험에 대한 개인의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SBNR식의 영성이 종교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에서 실시한 ‘한

의 후보작으로 선정된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입니다. 이 소설은 어머니를 제외한 언니와 가족을 잃고 언니의 어린 딸과 어머니, 이렇게 세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최근 결혼하고 반포에 아파트를 얻어 신혼집을 차린 P의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설 중간에 P의 신혼집을 찾은 주인공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P는 CCM을 배경 음악을 틀어주고, 낱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흘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느 날 난데없이 문자를 보내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P의 맥락 없는 관심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녀의 불확실한

교회의 열쇠를 건네주다

시러큐스 대학에서 영어와 여성학을 가르치던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레즈비언으로서 동성애 운동을 이끌었지만, 회심 후 동성애를 버리고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몇 년 전 복음과 집 열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그녀가 과거 동성애 운동을 하던 시절 경험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동성애자들은 서로의 집을 열어주고, 집 열쇠를 나누며 어려움을 때 서로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배척당해도, 언제든지 서로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자리아는 이러한 환대와 개방이 결국 미국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환대에 대한 다른

목회단상

오리지널 ‘라스코 동굴’ 과 ‘라스코 동굴 2’



한일철 목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MC)

프랑스에 있는 파리와 다른 도시들을 가보았을 때 역시 느꼈던 것은 프랑스는 정말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미술 분야에도 대단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대로 된’ 미술을 보려면 프랑스로 가야 한다고 미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프랑스 중부 내륙지역 도르도뉴주에 위치한 시골마을 몽티냐에서 신비로운 ‘라스코 동굴(Lascaux Caves)’이 194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신비로운 동굴인데, 길이가 무려 250미터나 되는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황소의 방’(Hall of the Bulls)이 나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면 ‘황소의 방’은 넓은 공간으로서 동굴 벽에 그려진 황소 벽화가 압도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그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잘 그려졌고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술가들이 꼭 한번, 아니 여러 차례라도 가서 직접 보고 싶은 곳이 바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라스코 동굴’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1940년에 동굴 입구가 개방되고 전 유럽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자 동굴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광객과 미술가들이 너무나 많이 동굴 안에 들어와 뿔어내는 이산화탄소와 동굴 내부의 온도와 습도 차이, 함부로 만져대는 손길까지 동굴 벽화에 해롭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결국 훼손을 막으려면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년이 지난 1964년부터 ‘라스코 동굴벽화’는 더 이상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부 기관의 추천장이 있는 전문가에 한해 하루 6명 이내로 동굴 벽화의 관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분 정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스코 동굴’을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라스코 동굴’을 나름대로 재현한 동굴이 ‘라스코 동굴’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인조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다 만든 것은 아니고 중요한 구간만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라스코 동굴 2’라고 하여 1983년에 개장한 ‘라스코 동굴’이며 화가들이 황소들을 재현하여 그렸습니다. 동굴 내부 구조를 상당 부분 재현했기 때문에 장소성을 살렸고 동굴 내부의 온도까지 서늘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재현한 것이라고 하여 벽화를 아무렇게나 허투루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내놓으라는 프랑스 화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그렸습니 다. 특수사진 촬영기자들과 수십 명의 화가들이 약 11년간의 작업 끝에 탄생시킨 이 복제동굴은 ‘라스코 동굴’ 벽화가 mm 단위까지 그대로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복제 동굴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박물관까지 들어서 이 일대가 하나의 관광지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곳은 현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리지널 ‘라스코 동굴’은 있어도 들어갈 수 없으니 재현한 ‘라스코 동굴 2’에 들어가서 본 후에 오리지널 ‘라스코 동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봄으로 원래 오리지널 ‘라스코 동굴’이란 곳이 실제로 있고, 어떻게 그 안에 구조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라스코 동굴 2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스코 동굴 2’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그 함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 역시 하루에 2명 명에게만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곳도 정교하게 그대로 재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라스코 동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는 이곳과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 마치 그렇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비로운 ‘라스코 동굴’을 들어가 볼 수는 없어도 실제로 프랑스 몽티냐 마을에 그 동굴이 실제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지금 가볼 수는 없어도 실제로 천국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다는 현재성과 그 나라가 아직 다 오지 않았으며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미래성의 긴장 관계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마치 ‘라스코 동굴 2’에 들어감으로 원래 오리지널 ‘라스코 동굴’이란 곳이 실제로 있고, 어떻게 그 안에 구조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의심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믿어질 것입니다.

hanusa1962@gmail.com



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의 비율은 2017년보다 10퍼센트 증가해 2023년에는 36.6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또,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무종교인의 비율이 약 6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무종교인 중 2/3가 과거에 종교인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조사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기성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탈종교화 현상의 주요 세대가 3040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비영적인 사람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여전히 영적인 갈망을 품고 있으며, 그 갈망을 채울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제도적이지 않고,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으며, 진부하지 않은 더 본질적인 기독교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갈망과 요구는 최근 나온 한 단편 소설 속에도 등장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 소설은 제13회 김유정 문학상

미래와 감히 결혼도 꿈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늙은 엄마와 고아가 된 조카를 걱정하는 자신의 상황에 어떤 위로와 공감도 되지 못합니다. 공감이나 없는 일방적인 배려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옆 가게에서 스낵게티 집을 운영하는 청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스낵게티 집 청년 사장은 주인공에게 은근하게 스낵게티 양을 많이 주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팬 사인회에 같이 가 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는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려하여 휴가비를 주시며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 서점 주인 부부의 배려에 세상 살맛을 느낍니다.

이 단편소설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단순히 조직의 논리나 관습에 얽매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책임져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들과 함께 하면 세상 살맛나는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3040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결혼, 경제적 자립, 직장생활,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그들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교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행 4:34-35). 사실, 집 열쇠를 처음으로 나눈 공동체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그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교회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닫힌 공동체로 변해 갔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열쇠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문이 닫힌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3040 세대는 마음의 문을 열어 자신을 맡아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환대해주고, 함께 삶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언제든지 들어와도 좋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by 이훈성, TGC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윤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8, www.lafccs.com 1670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4부(영양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46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일요일예배: 오전 11:15(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 bible@bkc.org / www.bkc.org 16700 Valencia Dr.,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sa.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구구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즈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37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은숙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회동목사) 성당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목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 리더 사 역: 1. 복음성당 2. 가정사역 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24시간 오픈 Tel: (714) 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영양/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a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유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W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 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균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C-동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0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러다오: 오전 9:00 수-요 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어제는 뉴욕 실버 선교회 20주년 감사 축제를 드리다!

20년 전에 뉴욕의 한인 목사님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핵심적인 주제는 젊은이는 줄어 들고 나이 많은 교인들만 자리를 지키는 현실에서 “노령 교우들을 위한 평생 목회 프로그램 소개하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플러싱 급강산 식당으로 오십시오!”였다. 모임에 잘 모이지 않는 목사님들이 그 날 27명이 모였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뉴욕실버선교회’였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선교 마인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민족을 예수께로 ●내 생명 다하도록 ●새로운 삶과 도전으로... 라는 비전을 갖고 출발했다. 효과적인 운영 세칙 몇 가지를 나눈다면... 1) 교육과 훈련은 이사들 교회로 매기마다 순회하여 특정교회만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한 교회에서만 집중하면 저변 인구 고갈로 오래 지속할 수 없다. 2) 모든 이사들이 강사가 되어 선교학의 골자와 핵심과 실천 교육에 역점을 둔다. 3)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영성 훈련과 사명 교육, 사역과 언어 훈련 등을 통해서 실버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4)반드시 강의 훈련 후에는 한 주간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16주간 훈련 교과 과정을 마련하고 출범을 했었다. 사실 교회에서 일생을 보낸 실버 파워들은 직접, 간접으로 평생 전인적인 교육과 훈련을 평생토록 해온 잠재 선교사들이나 다름 없다. 인격의 3요소-지성, 감성, 의지 면에서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시니어들을 평가해 보라. 저들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예비

선교사들이다.

유년 주일학교 시절부터 노년이 되도록 성경을 중심으로 안 배워본 성경 교육, 각종 성경공부를 배워보지 않는 것이 없다. 기도훈련과 체험만 해도 그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새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한두 번 금식기도 해 보지 않는 시니어들이 어디있을까? 철야기도, 산기도, 골방기도, 특별기도, 작정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연합기도, 돌림기도, 짝기도, 묵상기도, 말씀기도, 성령 집회기도, 은사기도, 방언기도, 구국기도, 서원기도 등등... 그동안 한국 교회가 실시해 온 성경 공부 과정들을 보라! - 기초 성경공부, 새가족 공부, 신구약 개론, 성경 통독반, 묵상공부(Q.T.) 교리교육, 주제별 성경공부, 인물별 성경공부,

전도만 해도 그렇다. 개인전도 한두 번 안 해 본 사람이 있납? 거리 전도, 태신자 전도, 초청전도, 총동원 전도, 민족복음화 운동까지... 이제 남은 것은 실버선교밖에 없다. 한국교회 출신 이민교회 실버들은 이미 준비된 마른 장작과 같다. 현지인들과 매일 함께 생활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미 문화 교육은 준비된 예비 선교사들이다. 이제 도화선에 불만 붙이면 즉각 폭발할 수 있는 영적인 TNT 그 자체들이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불붙이는 작업을 실버 선교교회가 감당해 왔다. 강의실 훈련 도중에 반드시 영성강화를 위해서 기도원에서 무박 2일간의 영성 훈련을 거치는데 이때 대부분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을 체험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기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훈련받은 실버들이 785명이었고 단기선교에 참여한 연인원이 1,035명이다. 이들 중에 현지에서 부르심을 받고 남은 평생을 오대양 육대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실버선교사들이 무려 7개국에서 15가정이 현재 섬기고 있다. 중남미-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에콰도르, 투르키예, 케냐, 미얀마, 하와이에서 교육과 학교 사역으로... 침구 사역으로... 청소년 상담과 전도사역으로... 문화 사역으로... 농장 사역으로... 난민 구제 사역, 심공부(Q.T.) 교리교육, 주제별 성경공부, 인물별 성경공부,

종사했던 전문직을 이용하여 선교지 현지에서 신바람 나게 사역에 임하고 있다. 함께 나누고픈 실제 상황이 있다. 한 국에서 엘리트로 살던 분이 유명회사 미국 지사장으로 뉴욕에 체류했다. 그의 신앙은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오래도록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왔지만 전혀 믿음이란 없는 사람이었다. 60대 중반에 그는 아내를 하루 아침에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외 기러기 신세가 됐다. 스스로 죽기를 고대하면서 주검을 향한 무모한 도전과 방황의 세월 3년을 살았다. 자동차를 전력질주하여 사고를 유발하면서 동서남북으로 긴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바라는데로 되지 않았다. 지친 끝에 모처럼 교회로 돌아왔는데 마침 실버선교교회 개강 광고를 듣고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고백하면서 훈련을 받고 멕시코 시골 마을에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 낙후되어 살아가는 마을을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연민과 동정으로 부르짖기 시작했다. ‘주님! 저 불쌍한 사람들... 살아서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지옥갈 저들이 불쌍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네가 책 읽지거라!” 그는 길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져 순종하겠다고 서약했다. 그리고 흠뻑으로 멕시코 시티에서 두어 시간 떨어저 있는 예가픽데이어라는 소도시에 정착을 했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스페니쉬도 겨우 일상 용어밖

에 소통할 수 없는 67세의 실버가 현지에서 농장을 임대하여 채소를 가꾸면서 틈틈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주민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는 현지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추천 받아 마을 교회 목회를 맡겼다. 그리고 농장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목회자 생활비를 충당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땅을 바치고 건물을 세우길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에 17개의 교회를 세웠다. 수차례 강도의 위협과 심각한 교통사고에서도 구사일생의 기적을 체험했다. 약한 번개를 맞았으나 옆사람은 쓰러졌는데 본인은 그때 심각한 위궤양이 즉석에서 완치되는 이적을 맞보기도 했다. 포기를 모르고 불철주야 신바람을 일으키던 그가 80을 턱밑에 두고 갑자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지가 이제 꼭 1년이 되었다. 실버 선교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71:18) 지역마다 연합하여 실버 선교회를 시작하기 원하는 분들을 돕고 싶네요. 한국의 시니어 코리아도 여기서 배워갔고 호주에서도... 여러 곳에서 계속 실버 선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네요. 샬롬!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성모 목사

(은평교회 담임, 한북기독교역사연구원장, 나누리 푸드뱅크 대표)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족장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두드러진 업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뭘 했다는 기록도 에피소드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

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은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에 있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삭의 가족 때까지 와서 나눠먹자고 하면 순순히 묵인할 그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애굽에 가지만 한다면 풍부와 부요가 보장되

사람임을 알게 되어 그를 두려워 하게 됩니다. 이삭이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삭의 편이였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우물을 약탈해 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

시편 37편 1, 2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찌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타나는 장소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그 옆에 숫양을 예비해 두셨습니

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장소가 브엘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

다. 이삭이 그랄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때, 놀랍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그를 방문한 것입니다.

28-29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

이삭이 받은 백배의 축복

창세기 26:12-33

의 반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이 우물 파기로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가나안에 엄청난 규모의 흉년이 들어 모두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자신도 모든 일행을 이끌고 흥

주십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거하는 그랄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습니

다.

첫째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년이러지만 남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산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랄도 흉년의 영향권

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블레셋인이 그를 시기하여 내쫓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고 이 우물을 블레셋인이 약탈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 블레셋인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행악자는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구절은 짧지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브엘세

바입니다.

24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떠나던 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던 첫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삭은 우물도 다 빼앗기고, 그랄에서의 부(富)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향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정말 뜻깊은 장면입니다. 이삭이 싸우고 대들어서 얻은 명예가 아니라 저주고, 포기하고,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들어서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아멘-

ccc7296@naver.com

가을이 주는 은혜

가을은 사람의 마음을 깊고 차분하게 만든다.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바람 속에 전해지는 쓸쓸함 속에서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한 순간들이 떠오르고, 지금은 닿을 수 없는 추억들이 아련하게 마음을 감싼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속 순간들은 어느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위로를 찾는다.

故 이경근 선교사

그러나 과연,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 참된 위로와 파스함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아주 드물다. 그런 중에, 아주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오래도록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나의 생일날 소천하셔서, 매년 생일의 날을 더 소망스럽게 기억하게 해주신 이경근 선교사님이시다. 그에 대한

지만 다 고사했습니다. 훈장처럼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유혹을 떨쳤습니다. "군대가면 군인들이 운동장에서 줄맞춰 가다가 호각 한번만 불면 뒤로 돌아 갑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랑할거 하나 없습니다. 주님이 호각 한번만 불면 처음이 쫓겨가 되고 쫓겨가 처음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의 설교 중 예화 /그는 자신의 설교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늘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략)

무엇보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설교하고 돌아와서는 "<한교회 한 신학생 돕기>를 한다고 해서 300만원 헌금하고 왔다. 설교때 저도 한명 돕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집에 오려고 하는데 다시 보니 <한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운동이더라." 사실은 가난한 신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요. 아들 결혼 후 받은 축의금 반은 아들이 졸업한 한동대에 받은 모교인 고신대에 거금을

하지 않아 섭섭할 거 같습니다. (이하생략, 서근석 인도선교사)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언제나 특별하고, 깊은 슬픔이 깃드는 순간이다. 떠나는 이들은 영원한 안식 속으로 평온히 들어 가지만,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는 허전함과 후회가 남는다. 떠나보낸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 역시 얼마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머니를 주님께 보내드린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이별의 아픔과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이 내게도 깊이 남아 있다.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이 선교사님은 항상 마음씨 좋은 형님 같은 소탈함과 소박한 웃음을 가지셨다. 그는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톡' 던져두듯이 마음을 두고 살으셨다. 내가 가진 몇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의논했을 때도, 아주 쉽고 간단한 말들로 정리 정돈해 주셨다. 삶이 복잡하지 않았다.

면서 하루하루가 분주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자주 미루게 되는 순간들이 많다. 그러나 주어진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일은 곧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사명이자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기회이다. 그런 이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을 축복"이라고 한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본다.

죽음은 단순히 인생의 끝이 아닌,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이다. 성도에게는 죽음이란 고통의 끝자락이 아니라 한순간의 편안한 잠과도 같고, 다시 깨어날 새로운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간 사람과의 천국 재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땅의 산자가 가지는 죽음에 대한 감성도 결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죽음이후에 남기게 되는 것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가을, 사람을 생각하며 남겨진 것

-故 이경근 선교사, 현재적 사랑과 믿음-

기억을 기록해보지만, 나를 그에게 처음 소개해준, 35년 지기 친구가 전하는 그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 더 좋아보여 옮겨 적어 본다.

[형님은 지난 10월7일(월) 64세의 일기로 천국으로 훌쩍 떠나갔습니다. 5월 발병을 확인 후 불과 몇개월 만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의 생 마지막 10여년 가량 선교사회와 본부에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친형제보다 더 친한 좋은 형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체장암 발병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 할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충격때문인지 면역이 떨어져 대상포진, 치근 구니야로 고생 중입니다.(중략)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989년 필리핀에 파송받아 선교사역중 고향의 충격을 받아 사경을 헤맸습니다. 2년여 투병 끝에 기사 회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냄새가 싫다고 했습니다. 회복 후 말레이시아로 다시 떠났습니다. 모두가 한사코 만류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다.'고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러교회, 단체, 방송에서 총에 맞고 살아난 선교사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몸에 총상만 보여줘도 소위 뜨는 강사가 될 수 있었

던금했습니다.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고신대 지인이 알려줘서 형님께 물으니 "내가 평생 교회밥 먹고 살았잖아. 우리 아들 교회에서 키워 주셨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고 답했습니다.

선교지에서서 이종택 장어를 겪던 어린 아들이 "정상으로만 살게 주세요!" 기도했는데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보내준 용돈을 모아 고신대 태권도 학과에 장어를 가진 어머니를 둔 학생과 가난한 학생 2명을 매달 30만원씩을 아무도 모르게 도왔습니다. 정작 자신은 5년 동안 사시사철 어디를 가던지 늘 친구인 홍영화 본부장이 사준 바지 한장만 입고 살았습니다. 보다 못해 바지 하나 새로 사라고 했더니, 새 바지 사서 입고 좋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얼마나고 물으니. "만원!"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그는 우리 곁을 떠나 갔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뭘 잘 잃어 버리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어디에 폰을 두고 오고 늘 손이 많이 가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더 이상 뭘 잃어버리지도 않고 차태우러 오라고

자식의 일로 인해 나에게 부탁을 할 일이 있어도, 항상 부담스럽지 않게, 주님께 맡기며 말을 끝내셨다. 실제로. 그 믿음위에 그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복되게 하신 것을 보았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특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종중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지나간다. 오늘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남기게 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살아가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사는 것이다." 삶이 바쁘다고 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덮어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바쁜 순간 속에서도 순간순간 사랑을 나누고,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삶.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참되다는 뜻이다. 그렇게 현재에 최선의 웃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비록 이 땅의 삶을 짧게 마무리했지만, 모두가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하늘이 준 특별한 기회, 현재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이 세상을 떠난 뒤 남는 것은,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긴 사랑과 믿음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앞두고 "울지 말고 찬양하라"는 말을 남기곤 한다. "내 장례식에는 검은 넥타이, 검은 옷 입고 오지 말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라. 슬픈 장례식 찬양받고 힘차고 기쁜 찬송을 불러라" 등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본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임을 믿기에 가능한 일이다.

삶의 끝에서 성도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과 믿음을 유언으로 남긴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별이 아닌, 살아 있는 이들에게 신앙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순간이 됨을 본다. 그 사랑의 유산은 남겨진 이들이 이어받아 삶의 길을 걷게 하고, 신앙의 길을 이어나가게 한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오늘의 소중함을 잊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의미 있게 보낸다면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 큰 의미를 만들어갈 것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상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oc316@gmail.com

Q: 가까운 이웃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를 전도하고 싶은데 불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불교는 누가 창시자이며 극락에 간다는 내세관은 어떻게 생겨났는지요? 불교 신자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요?
- 로스엔젤레스 김노아 집사

불교인을 전도하고 싶은데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는 기원전 560년경에 출생해서 80세에 사망했는데 지금의 네팔지역에 살았고 원래가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29살 되는 해에 출가하여 수행하다가 35살 되는 해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백팔번뇌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나 자신도 없는 무아(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욕심을 버리고 살기를 권면했을 뿐 자신을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영혼과 내세 곧 윤회설을 그는 철저히 부정했고 윤회는 인간이 만든 가장 사악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힌두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인 총다라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자 석가모니는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면데 죽고 난 후의 일을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고 누누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더라고 말하며 자신이 예언자나 신의 메신저라고 불리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500명의 스님이 집대성해서 아함경을 집필하여 원시불교, 소승불교, 상좌 불교를 창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스님에게만 약 당신이 지금 죽으면 극락에 갈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단 한 명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불교를 극락에 이르는 종교로 알고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죽은 후 약 700년 후에 나가르주나가 새로운 불교 즉 대승불교를 창시하였는데 그는 석가모니의 소승불교와는 달리 가짜로 내세, 윤회 극락을 인정했고 그 외에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왜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중국의 현장 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전파되었습니다. 현재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은 스리랑카의 일부 지역뿐 우리에게 익숙한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아미타경, 천수경은 석가모니가 아니라 나가르 주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가짜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대한 불교 조계종의 6-7대 종정이었던 성철스님은 운명 직전에 불교가 거짓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딸, 불필스님도 내가 잘못 인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자신은 한 번도 구원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불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자를 전도할 때에는 "당신이 극락에 갈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죽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태양이 하나이고 어머니가 하나인 것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님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신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가치일 것이다.

그리스도인, 은혜의 선물

이 가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큰 은혜의 선물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을 나

누고 마음을 전하며, 격정하지 말고 사는 일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주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대신, 지금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의 진심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가을은 다시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의 순간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소망가운데 살아가자.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왜’?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밤새 ‘안녕’이라더니...
국민엄니로 큰 사랑을 받았고, 남다른 음식씨와 넉넉한 베풀음으로 동료 연예인과 특별

히 후배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일용엄니’ <김수미>씨의 소천 소식을 미국에서 나 또한 자고 난 후 접했다. 많은 유명

인의 부고 뉴스를 들을 때 그저 안타까운 소식이었다면, 이번 고 김수미씨의 죽음은 뭔가 맥이 탁 풀리며 나에게도 큰 충격으로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요즘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누구보다 혼자 신나서 들뜨고 흥분하며, 가족들에게 엄마도 한강은 못돼도 한 톨은 되어보겠다며 한창 글쓰기 의지를 다시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을 타는 건가? 의사 말대로 갱년기 때문에 그런가? 여름에 한국에 다녀와서 그런가?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박완서님의 책을 펼쳤다. 책장마다 연필로 언제 그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페이지를 넘긴다. 읽을 때마다 새로 쌓이는 밑줄은 같은 책을

같은 사람이 읽어도 항상 다른 감동과 생각을 주는 좋은 글의 신비함을 느낀다.

10년 전 잡척을 당하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거였다.(중략) 슬픔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원망과 치욕감이었다.(중략) 그때 만난 어떤 수녀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래, 내가 뭐관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은 나에게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일까. 그거야말로 터무니없는 교만이 아니었을까. <나를 닮은 목소리로> 박완서/문학동네

나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어려움 당한 소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소식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항상 속이 짝 막히는 듯 깊고 답답한 ‘왜?’였다. 책을 읽으며 그 해답 중 하나를 또 깨달았다. 그런 마음은 모두 작가의 고백처럼 터무니없는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나 혼자 감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믿고 살지만 녹록지 않은 인생의 힘듦에 넘어지고 혼자 눈물을 흘릴 때는 얼마나 많았던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예레미야애가서의 말씀에 다시 연필을 들고 밑줄을 긋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생과 근심을 알고 계시고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어리석고 교만한 나를 회개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예레미야애가 3장 32절~33절)

11월 Thanksgiving Day의 풍성한 축복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한다.

‘왜?’라는 의문으로 고생하며 근심 중인 많은 이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한다.

songje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우간다 기독교인, 산 채로 화형... ‘황산 테러’ 까지

전체 인구의 82%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된 우간다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행과 방화 등 도를 넘는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4살배기 딸을 포함한 목회자 일가족이 모두 산 채로 화형 되는가 하면, 무슬림 남편에게 기독교 신앙이 발각돼 구타당한 후 황산 테러를 당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위래 무키사(30) 목사는 지난 13일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됐다. 무키사 목사가 지난 9월 무슬림 3명에게 복음을 전해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자, 이를 목격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무키사 목사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당시 목격자 투수비라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전 2시 50분경 무키사 목사의 집에서 불길과 연기가 나오는 것을 훗아울라 곧장 마을 사람들과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그러나 무키사 목사의 아내, 4살배기 딸을 포함한 시신 5구는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탄 상태였고, 집 밖에서는 휘발유 병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투수비라씨는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평소 무키사 목사와의 사이로 범행 이후 도망쳐 현재 경찰이 수색 중에 있다”며 “마을 사람들 모두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끔찍한 공격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간다 나코마 마을에 거주하는 히다야 나바파(27)씨는 지난 9월 무슬림 남편에게 기독교 신앙이 발각돼 구타당하고 황산으로 인한 화학 화상을 입었다.

나바파씨는 “두 달 전 한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후 예수님을 영접했다”며 “지난 9월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를 캐물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자 남편은 나를 상자에 넣고 구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나를 바닥에 버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돌아와서 내게 배터리

산(황산)을 뿌렸다”며 “의식을 완전히 잃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니 주변 이웃이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상태였다. 화상이 심각해 몇 주간 더 치료를 해야 하며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우간다의 헌법은 ‘시민이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 폭행 등 기독교인에 대한 무슬림의 공격은 확산하는 추세다.

日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최초

대지진 여파로 운행을 중단했던 도호쿠 지역 원자력 발전소가 13년7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원전 중에서는 처음이다.



도호쿠 전력은 29일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에 있는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2호기를 재가동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원전이 재가동되는 처음이다. 당시 지진으로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겪은 도코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형태인 비등수형 경수로(BWR)가 재가동하는 사례로도 처음이다.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다음 달 7일에 발전을 재개하고 오는 12월 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호쿠 전력은 이날 오후 7시 원자로를 가동한 뒤 원자로 내 핵분열 반응을 억제하는 제어봉을 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반응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임계’ 상태에 도달하면 본격적으로 발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지는 전했다. 도호쿠 전력 히구치 코지로 사장은 “계속해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각 프로세스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교훈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새로운 규제 기준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간사이 전력 7기, 규슈 전력 4기, 시코쿠 전력 1기 등 모두 12기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거쳐 재가동됐다. 도호쿠 지역에서는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처음이다.

헤즈볼라 새 지도자 카셈은 누구?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 사후 1개월 만에 셰이크 나임 카셈(71)을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사결정기구인 슈라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나스랄라가 사망한 후 공석이 된 사무총장에 카셈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가 달성될 때까지 나스랄라의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외곽 다히예 지역을 표적 공습해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나스랄라의 사촌 하심 사파에딘도 이달 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 새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카셈은 나스랄라 사무총장 시절 30년간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가자전쟁 이후 헤즈볼라의 주요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나스랄라 사망 후에는 2인자로 불리며 조직을 이끌어왔다.

카셈은 나스랄라 사망 후 헤즈볼라 지도부 중 최초로 텔레비전 연설을 한 인물이다. 지난 9월 30일 연설에서 카셈은 헤즈볼라가 가능한 한 빨리 후임자를 선택할 것이며 팔레스타인과 연대해 이스라엘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에도 카셈의 30분에 걸친 텔레비전 연설이 공개됐다. 이 연설에서 카셈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누가 먼저 울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쟁이며 헤즈볼라는 먼저 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헤즈볼라의 역량은 유지되고 있으며 휴전 노력을 지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1953년 베이루트에서 태어난 카셈은 시아파 정치 활동을 거쳐 1982년 헤즈볼라 결성에 참여했다. 그는 1992년 헤즈볼라가 처음 레바논 선거에 출마한 이래 헤즈볼라 선거 캠페인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카셈은 예언자 무하마드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검은 터번을 쓴 나스랄라나 사피에인과 달리 흰색 터번을 착용한다.

나토 “북한군, 러 쿠르스크 파병 확인...즉각 중단해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마쳤다고 밝혔다.

성경 낭독의 방법

예배에서 성경이 편중되게 낭독되어서는 안 된다. 잘 알려진 부분과 신약과 시편뿐 아니라 구약 전체와 요한계시록도 낭독해야 한다. 성경을 낭독하는 양은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낭독해야 할 성경 본문의 장이 긴 경우에는 나누어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의 장을 나눌 때는 단락 안에서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예배에서 성경 낭독은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낭독해야 한다. 예배에서 신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구약에서 낭독하는 것이 좋다.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신약에서 낭독하는 것이 좋다. 개회교회 전통의 중요한 예배 지침서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예배에서 설교 본문과 메시지 이외의 구약에서 한 장과 신약에서 한 장을 공적 예배에서 낭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말씀 예전으로서 성경 낭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순차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경향은 주로 구약의 시편으로 구성된 교독문을 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에서 시편은 교독 형태로 복음서는 낭독의 형태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성경을 낭독할 때는 계획을 세워 연대기적으로 혹은 문학 유형을 번갈아 가면서 혹은 성경적 순서에 따라 낭독해 갈 수 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시편과 같은 성경의 특별히 교훈적인 부분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좋다. 시편은 삶의 실체를 다루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쏟아 부어진 열망의 상태, 즉 불평, 마음의 애통환, 공허감 등을 잘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by 최창국, TGC

성경 낭독도 예배다

(2면에서 계속)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은 은총의 수단이다.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강해진다. 성경 낭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은총의 수단이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지 설교만을 통해서 듣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배에서 설교가 바르게 행해질 때,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적 자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할 수 있다.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듣기 때문에 설교는 그 어떤 요소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설교가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설교자의 왜곡된 해석이 왜곡된 들음으로 이끌 위험성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교육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 낭독이 예배의 맥락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서술하면, 설교는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낭독이 더 바

람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성경 낭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순수하게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성경 낭독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순수하게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체험적 경험, 선입견, 느낌, 취향, 교리 체계 등으로 구성된 인식 필터(cognitive filters)를 통해 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듣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설교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자의 인식 필터를 통해 지나친 해석을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2. 윤계상 (1867-1922)

윤계상(尹繼相)은 1867년에 한국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파평 윤씨 가정에서 출생했다. 그의 본명은 윤원식이었고, 그의 자가 윤계상이었다. 결혼한 그는 처자와 함께 평화리에서 거주했다. 그가 살던 평화리가 경남 합천군 대명면에 있는 평화리일 수도 있다.

윤계상은 1905년에 38세의 나이에 처자를 한국에 두고 홀로 시베리아 선박을 타고 하와이로 향했다. 시베리아 호를 탈 때 그의 이름은 윤원식이었고, 영문 표기로는 Youn Won Sik이었다. 그는 그해 5월 8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하와이에서 윤계상은 한자 표기 尹繼相 대신에 尹桂相으로 썼고, 일본 영사관은 尹戒相으로도 표기했다. 그리고 영문으로는 Yoon Kie Sang으로 표기했다.

윤계상이나 윤원식은 초기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인명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인이 아니었을 것 같다.

윤계상은 1909년을 전후하여 하와이 마우이섬 하나에 거주했다. 그해 7월 21일에 발행된 신한민보에 기재한 신한민보 후원 명단에서 윤계상을 볼 수 있다. 아래는 신한민보에 기재한 후원 명단이다: 박용택, 조갑석, 윤계상, 김덕희, 김창덕, 고운선, 박재순, 김용구, 이근선, 김창현, 강명옥, 신덕문, 박원백, 박창순, 변익보, 김봉길, 조문철, 한영호, 길찬록, 이성환, 김재규, 김영진, 조순옥, 임재덕, 이장준, 류인서, 고성화, 박상선, 문인화, 김주애, 박석근, 조경만, 이수영, 김두섭, 박진규. 이들은 최고 3달러에서 최저 25센트까지 후원하였지만, 대부분이 50센트 내지 25센트를 후원한 데 반해 윤계상은 1달러를 후원하니 그의 후원액이 적지 않다.

그해 3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가 하나와 라하이나 그리고 기파후루에 거주하던 한인을 위하여 순회 목사를 파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용운이 권사로서 하나 한인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위의 신한민보 후원 명단의 대부분

은 하나 감리교회 교인으로 생각해도 별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윤계상은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한인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에 크게 힘쓴 것으로 보인다.

1916년 1월에 하와이 지방총회 총회장 홍한식이 책임 임원을 조직하였다. 그때 윤계상은 학무원에 선임되었으므로 이때부터 나라 사람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것 같다. 그 외 임원은 총무에 안현경, 서기 겸 재무에 이종홍, 법무원에 정운서, 구제원에 승룡환, 군무부원에 손창희 그리고 농상부원에 김광옥이었다.

그해 윤계상은 호놀룰루에 있던 하와이 기숙사학교라고도 불렸던 '한인 여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당시 이승만은 교장이자 기숙사 사장이었다. 이승만이 1916년 하와이 연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1913년 가을에 이승만이 한인 여학교를 시작할 때 여러 농장에서 온 5명의 여학생이 등록하였지만, 1916년에 강종필이 11배가 되는 57명의 여학생이 등록하였다. 1913년 여름부터 1916년 1월까지 후원받은 총액은 7,700달러였다. 이 중 외국인이 지원한 200달러를 제외한 7,500달러를 한인 이민 노동자가 후원하였으므로 한인 여학교는 당시 24달러 내지 30달러의 월급을 받았던 한인 이민 노동자가 평상금히 스스로 지원했던 학교였다. 재학생들은 호놀룰루 한인 제일감리교회에 등록하였고, 매주 주일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으며, 매일 학과가 시작하기 전에 아침 경건회를 했고, 저녁에도 기숙사에서 경건회를 가졌으며, 나이 든 여학생은 성경공부반을 조직하였다. 지난 1년간 많은 학생이 세례받았고, 학생 중에는 기독교적 삶을 인도하기로 동의하는 약

속 문서에 날인한 자도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윤계상을 포함한 학교 당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후원자들에게 이들 학생에 대한 애정과 이들 학생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1918년의 한인 여학교 건물은 3층이었고, 1층은 교회와, 2층은 교실이 그리고 3층은 여학생 기숙사가 있었다.

1916년 2월 이후 1년간 윤계상은 안원근, 조석진, 김종운, 유계준과 함께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받았다. 그달에 송헌주가 위의 교회 목사로 파송받았고, 김광H가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보고된 교세 통계에 따르면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직원과 교사가 13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175명이었다. 그리고 학습 교인이 85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138명이었다. 엠위스 학생은 38명이었다. 당시 예배당이 2곳에 있었고, 두 곳 총 가격이 32,000달러였다. 지출 비용에 따르면 두 건물과 건물 개조비가 6,922달러였으며, 예배당과 사택을 위한 비용이 250달러였고, 예배당과 사택에 진 빛이 4,755달러였으며, 연료 및 전기 등에 쓴 비용이 182달러였다. 1917년 보고가 구할 수 없어 1년간 사역한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

1917년 12월에 하와이 지방총회 총, 부회장 선거가 있었다. 총회장 후보자는 이승만과 안현경이었고, 부회장 후보자는 윤계상과 손창희였다. 그달 29일에 제1차 보고에 따르면 총회장 선거에서 이승만과 안현경이 각각 63표를 얻었고, 부회장 선거에서 윤계상이 손창희 보다 14표가 많은 70표를 얻었다. 그 후 총회장에 안현경이 선정되었고,



한인 여학교 (1918년)

윤계상은 부회장으로 확정되었다.

이듬해 2월에 국민회 창립 제10주년 기념 겸 축하회와 하와이 지방총회 총, 부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그날 오전에 방화중 목사가 사회를 본 가운데 국민회 창립 제10주년 기념 겸 축하회가 있었다. 취지 설명 후 찬가가 제106장을 제창하였고, 한원구가 기도하였으며, 여학원 학생이 창가를 하였고, 이종홍이 하와이 지방총회 역사를 진술하였으며, 밀스 학교 학생이 창가를 불렀다.

곧이어 하와이 지방총회 총, 부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웨슬레를 여학생이 창가를 부른 후 총회장 안현경과 부회장 윤계상이 취임을 맹서하였고, 중앙학원 학생이 창가를 불렀으며, 총회장이 연설했고, 한인 성공회 학생이 창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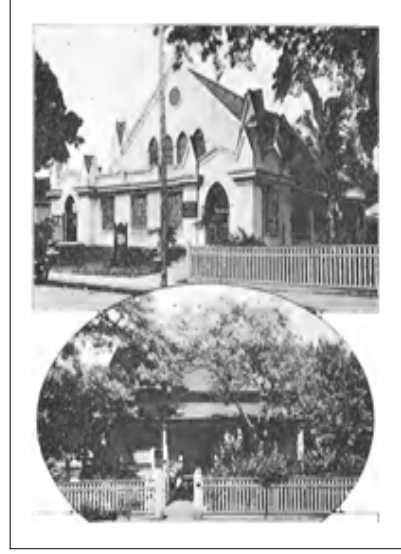
를 하였으며, 일동이 국가를 부른 후 송헌주 목사가 기도하고 폐회하였다.

그날 오후에는 6개 한인 학교 학생의 체육 대회가 성황리에 있었다. 그해 하와이 지방총회 기타 임원은 총무에 김광재, 서기 겸 재무에 이승만, 학무원에 송덕인, 법무원에 양홍렬, 구제원에 정윤필, 군무부원에 손창희 그리고 농상부원에 서상홍이었다. 그런데 취임식 직후 총회장을 중심에 두고 불거진 논란으로 임시의회를 소집한 가운데 윤계상이 총회장 대관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3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윤계상이 한재명과 이태성과 함께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받았다. 그달에 보고된 교회 통계를 2년 전의 통계와 비교하면 주일학교는 이전과 같이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직원과 교사는 8명이 많은 21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6명이 많은 181명이었다. 그리고 학습 교인이 51명이 적은 34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20여 명이 많은 160여 명이었다. 엠위스 회원은 10명이 적은 28명이었다. 당시 예배당이 2곳에 있었고, 두 곳 가격이 32,000달러여서 같았고, 연료 및 전기 등에 쓴 비용이 138달러가 많은 320달러였다.

그해 12월에 1919년 하와이 지방총회 총회장 후보로 이종관과 함께 윤계상이 피선되었으나 총회장에 이종관이 선임되었고, 윤계상은 하와이 지방총회 대표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외 임원은 부회장에 손창희, 총무에 김광재, 서기 겸 재무에 김영우, 학무원에 이승만, 법무원에 서상홍, 구제원에 정윤필, 군무원에 손덕인, 농상부원에 신성일, 중앙대표원에 윤계상 외에 안현경과 류상기였다.

1919년 2월에 발간된 국민보에 윤계상이 "우리의 급무"를 기고했다. 전문을 아래에 실는다. "고서에 말하였으니 의식이 족한 연후에 반드시 예절을 행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천고에 격답이 될 뿐 아니라 금일 우리에게 대하여도 적당한 말로 확연히 만나니 자고이래로 역사를 참고하여 보면 나라가 가난하고 백성이 약화된 국민의 마음이 불화하며, 나라가 부요하고 백성이 강하면 국민의 마음이 화하여 온전히 통일함은 역사상에 눈으로 보는 바다. 그러한즉 시대는 비록 고금이 다르나 인심은 결단코 고금의 다름이 없을지라.... 현금 유지 신사는 말하되 단체를 공고케 함이니 교육이 필요함이니 실업 발전이니 운운하나 이상 세 가지가 긴요치 않은 바는 아니로되 공론에서 지나지 아니하다. 단체도 재력이 아니면 공고케 못할 것이요 교육도 재력이 아니면 장려치 못하며, 실업도 재력이 아니면 발전케 못 할지라. 대저 개인의 생활이 완전치 못하면 모든 계획이 곤란하여 이산함을 면치 못하며, 기한을 견디지 못하여 염치를 불고하겠거든 옳은 사상과 옳은 활동을 해가에 경영하리요. 연래로 사회적 요소와 교육적 요소와 실업적 요소로 유지 신사의 연설과 필단이



신문상에 만폭 기재한 것을 볼 때 우부로부터라도 뇌두에 착임이나 완전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실행할 재력이 없는 연고로다.

회라, 우리 동포 형제여... 금전은 온전히 인류의 활동을 작음케 하는 기관이라. 그러므로 황금 저축에 주의치 않으면 단체 공고와 교육 장려와 실업 발전은 고사하고 개인 활동도 오히려 불능함은 말하지 않아도 헤아릴지라. 나는 단언하노니 이상 세 조건을 원할진데 관념하며, 주의할지라. 재력의 정도를 가히 이를 목적으로 의식과 비용을 경제하며, 낭비치 아니함이 가하다... 만금에 부요도 이것으로 시작하였나니 대저 천하 만물이 적소 성대는 자연한 이치어늘 적은 것은 경히 알고, 큰 것을 중히 아는 것은 인류의 상정이다. 그러나 물질에 본체를 연구하면 결단코 적은 것이라고 등한히 보지 못할지라... 하와이에 재류하는 5천명 한인은 시험하여 볼지라. 매일 매명이 1전씩 저축하면 1일에 50원이고, 1삭에 1,500원이고, 1년에 18,000원이 되니 소불과 5년이면 얼마며, 다불 10년이면 얼마요. 매인이 매일 1전으로 시작하여 5인이... 10년을 취직하면 거만의 재력을 이룰지라. 가끔 이 작비는 장래에 희망이니 유야 동포는 심지를 연락하여 경제와 저축을 연구 실행하면 실업도 일로 쫓아 발달할 것이요, 교육도 일로 쫓아 장려할 것이요, 단체도 일로 쫓아 공고할 것이다. 고로 최요 급무는 황금 저축이라 하노라."

1919년 8월에 하와이 지방총회 선출 중앙 총회 대표원으로 윤계상이 안현경과 함께 출타하여 상해 임시 정부와 교섭하였다. 이듬해 12월에 윤계상은 안현경과 함께 1921년 하와이 지방총회 총회장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하와이 일본 영사관은 윤계상의 나라 사람과 독립운동을 두고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의미의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선별할 정도였다.

윤계상은 1922년 6월 18일(음력 1922년 5월 23일)에 하와이에서 향년 55세로 하나니의 부름을 받아 빅아일랜드에 안장됐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예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 6:00 (토) Tel: (516) 387-9940, 9942 (Ext.),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영예 예배: 오전 10: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8:00 Tel: (718) 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15분 주일 3부 오후 1:50분 청년부 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nu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L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 예배: 저녁 7:00 수요일 기도: 저녁 9:00 7:14 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 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t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2:00 (영아)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	--	---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02: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 기도: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2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영예 예배: 오전 02:00 청년 예배: 오전 08:45 금요일 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kicb.org 14 Greenvale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청년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8:00 성경공부: 오전 5:30 (월-토) Tel: (516) 6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54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예 예배: 오전 11:15 청년회 기도: 오후 11:15 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5 (월-토) Tel: (718) 762-2525, 5756, www.hyoos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 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일 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5:45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dogchurch.org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 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청년 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6: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선교인물발신역: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68, www.b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금), 2:00 (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 기도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Tel: (604) 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포어 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ívi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i S.Paulo CEP 01528-010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e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30 (영아) 주일 4부 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금요일 기도: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3:00 주일 3부 예배: 오후 5:00 Tel: (52) 3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 (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I. 칼빈의 영적인 순례

1. 시편 주석의 자기 상황 적용

1) 신앙에 있어서 시편의 역할

(1) 시편의 위대함에 대한 칼빈의 묘사 그는 시편에 대해 가장 다양하고 빛나는 보화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고백한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편이 지닌 가치를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가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해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거울에 비추어지지 않은 심상 곧 감정을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기독교강요』, 3.2.17에서 칼빈은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정서적 상태를 인용하고 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시편을 통해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욕과 소망과 근심과 걱정 곧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여 놓는 온갖 격동하는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위탁하여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담고 있음을 천명한다. 칼빈은 시편을 선지서에 포함시킨다. 그 이유는 선지서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시편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습관적으로 다윗을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가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는 말씀에 의지한다.

(2) 지속적인 자신과의 대화로 간주되는 시편

칼빈은 이 시편이 선지자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드러내고 하나하나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도록 요청하거나 인도함을 알았다.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 중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솔직한 악들 중에 어느 하나도 숨겨진 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표현한다. 마음속의 구석구석까지 노출되어 가장 극악한 악



까지도 밝은 빛 아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요새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지침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기에 시편을 이해할 때 독자의 신앙은 크게 증진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교리의 상당한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칼빈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좌절에 빠져서 큰 불안과 혼란을 느끼다가 마침내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때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기독교강요』, 3. 20.11).

2) 시편에서의 기도

참된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의 필요로부터 시작됨을 말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그때에 시편을 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있음을 제대로 알고 처방을 찾게 된다고 한다. 어떤 동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 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과 육신적인 방해 사이에 끼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기독교강요』의 ‘유혹에 대항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부분(3.2.17)에서 칼빈은 시편 42:5; 43:5, 31:24, 77:7-10을 인용한다.

우리의 온갖 의심 때문에 괴로워할 때 언제나 시편에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여 마침내 자유함을 얻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른다. 더하여 주저함, 공포,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에 의하여 위로를 얻는다. 불신인 기도의 문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가득차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가지게 된다. 많은 시편 구절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힘든 노력에 의해 응답의 보상을 얻고야 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시 92:12, 27:14). 한편에서 육신의 연약함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의 위력이 드러난다. 믿음의 위력이 바라던 것만큼 강하지 못할 때도 믿음은 점점 더 힘을 얻을 때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적절한 기도의 원리들이 시편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음을 밝힌다.

3) 찬미의 제사

시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동시에 너무 수치스러워 사람들 앞에 내놓기를 꺼리는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허용한다. 시편에는 또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적절한 방법이 나와 있다(시 50:23; 히 13:15). 이 제사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하고 답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시편에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게 형성시켜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다. 시편에는 참된 순종의 본보기가 있다. 우리 자신이 애착을 느끼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쓰라리고 거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달콤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이 있어서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도록 가르친다. 그때에 경건한 신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시편에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사죄가 풍성히 나타나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지속하게 한다. 영생의 지식에 필요한 것이 시편에 모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ITS 교수)

가을 여행

이번 가을에는 여행 복이 많았다. 단풍을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막내가 직장 동료 결혼식으로 켈거리에 갈 일이 있다고 해서 딸과 함께 켈거리어서 만났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도시가 노란 낙엽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 내린 비로 산은 온통 흰 눈이 쌓여서 오랜만에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기쁨도 누렸다.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숙소를 나와서 로키산맥 이곳저곳을 하이킹했다. 각자의 일로 바쁜 아이들과 시간을 맞추어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던 한 주간이었다. 켈거리에 다녀온 지 두 주 만에 동생처럼 지내는 집사님 부부의 배려로 스위스를 다녀왔다. 교회사역과 학교 일을 그만둔 내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은퇴선물로 비행기표를 사 주셨다. 나머지 여행경비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채워주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생일 선물을 듬뿍 주시는 것 같았다. 일상을 벗어나 어디로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삶에 쉼과 배움을 가져온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사는 동안에 틈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스위스에 처음 간 것은 구 년 전이다. 언니의 육신 살 생일 기념 여행 때 언니가 경비를 부담해주면서 나를 데리고 갔다. 워낙 기억력이 나쁜 내가 그 여행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몽블랑 정상을 운행하는 조그맣고 예쁜 빨간색 케이블카와 숙소 앞 광장에서 열린 파머스마켓에서 산 정말 맛있었던 산딸기, 그리고 풍두는 한 번 먹어봐야 한다고 식당에 갔다가 주문을 잘못해서 빵만 한바구니 나와서 치즈에 담가 먹다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다. 그런데 이번에 루체른 호수에 가서 꽃으로 장식된 카펠다리를 보니 언니와 그 다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생각이 났다. 구 년 전에 루체른에도 들렀던 것이 확실했다. 언니가 아픈데 혼자 스위스에 가는 것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떠난 여행이었다. 언니의 절실 살 생일에는 내가 여행경비를 낼 테니 다시 오자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시간도,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는데 언니는 여행은 커녕 삶의 소망마저 사그라져 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숙소에 들어와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함께했던 여행의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는 언니는 나 혼자 다시 유럽에 가서 미안하다는 말에 내가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언니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쁜 것이라고 겨꾸로 내게 위로를 했다.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곳인 융프라우를 간 날은 구름이 많이 끼어서 산 밑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매년 71개국에서 백만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융프라우에 철도가 만들어진 것은 미래를 꿈꾼 한 사람의 스케치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알프스를 산책하던 중 산 정상까지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16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한다. 사람은 떠나도 그가 남긴 창조적인 유산이 후대에 주는 유익을 생각했다. 스위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 방문한 곳은 쾰빙글리가 종교개혁 때 설교를 한 쾰리히에 있는 교회였다. 설교단에서 힘차게 개혁을 외쳤을 그를 그려 보았다. 우리가 삶을 마친 후 우리의 일생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남겨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헨리 나우워의 죽음에 대한 묵상이 떠올랐다. 산 밑에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어디선가 알프스 소년 하디디가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곳, 목에 방울을 단 누렁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스위스를 내 일생에 다시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을 여행에서 주신 풍성함을 마음에 담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linda.pyun@itsla.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전 7:30 (화-금) 오전 6:00 (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고제일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인도: 매주(목) 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stocros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scolto@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89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성종 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영양인도: 오후 8:00 유지, 워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nn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850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si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254) 213-1200 (254) 658-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oni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감사할때 일어나는 기적

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번은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이면 노르웨이에다 창고를 지었는데, 사탄의 창고에는 각종 씨앗들 즉 염려, 근심, 미움, 원망, 시기, 분노,

음란, 좌절 등 온갖 씨앗들이 산더미처럼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 씨앗들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면 어느 동네에서든 누구의 마음에서든 씨앗이 잘 나는데, 한 동네에만은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의 이름은“감사”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사탄이 뿌린 씨가 싹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노르웨이에 생겼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어느 무명의 흑인 병사가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제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낮추시어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잔잔한 감동이 흐르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미네소타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7년 4월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떼가 미네소타주를 습격하여 농작물이 전멸할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때 주지사 필스버리(Pillsbury)씨는 모든 주민에게 4월 27일을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농작물은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우리에게겐 건강할 몸이 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미네소타 주의 모든 교회는 문을 열고 감사 예배를 드렸고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감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 일어 난 것입니다. 온 들판을 가득 메우고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과학자들이 메뚜기떼가 전멸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다방면으로 연구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50:23 엔“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songpkap@hotmail.com



‘성경과 정치’에 관해 발표하고 있는 민종기 목사(우)와 ‘뜻으로 본 한국정치’를 소개하는 박문규 박사(좌)

마틴루터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북 콘서트

‘성경과 정치’ (민종기 목사), ‘뜻으로 본 한국 정치’ (박문규 박사)

민종기 목사(KCMUSA 이사장)와 박문규 박사(전 CIU 학장) 북콘서트가 24일 오후 5시 30분 LA비전교회에서 열렸다. 마틴루터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여 ‘정치 신학과 한국 정치’라는 주제로 열린 북콘서트에서 민종기 목사의 번역본 ‘성경과 정치’(Richard Buckman의 원저 “The Bible in Politics”)와 박문규 박사의 ‘뜻으로 본 한국 정치’가 발표됐다.

발표에 나선 민종기 목사는 “리처드 보룸은 성경신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회를 재해석 하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은 ‘살리는 정치와 죽이는 정치의 구분’이며 역사 속에 팽배했던 ‘군림의 정치’에 대한 성경의 대안으로 ‘섬김의 정치’를 보여준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섬김의 지도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민 목사는 “결론적으로 보람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버리지 말고, 신앙의 공공성을 찾고 르무엘왕(잠언31:1-9)을 향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도 언급

했다.

논찬에 나선 신웅길 박사(폴리신학대학원 신학박교수)는 민종기 목사의 “본서를 통해 보람의 주장하는 교회가 잡아야 할 정치균형은 사도 바울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문규 박사는 ‘뜻으로 본 한국정치’를 194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분류했다. 그는 ‘해방과 한국전쟁의 재해석, 정부의 모순, 4월 혁명이 주는 의미, 검의 시대, 탄압의 극대화와 저항, 폭력정권, 사기정권, 문민정부의 실패와 어둠에 갇힌 햇볕정책, 부자들의 행진등, 역사적인 정치인물들’을 소개해 나갔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의 통령한 회개와 물신 숭상에서 해방 때 남북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문규 박사의 논찬자로 안태형 박사(국제관계학 박사,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가 박문규 박사의 저서에 대해 평했다.

이어 이성복 교수(전 USC 연구교수)의 인도로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 회장)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엘피스 패밀리가 주최한 사모들을 위한 제4차 힐링캠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엘피스 패밀리, 사모들을 위한 제4차 힐링캠프

“사역은 부르신 분을 위해 일하는 것”

엘피스 패밀리(대표 박운송 목사)는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제4차 힐링캠프를 10월28일(월)과 29일(화) 양일간 메이터 돌로로사 수양관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를 주제로 가졌다. 박운송 목사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김은주 사모가 기도했으며 한기형 목사(하늘

문교회 담임)가 삼상1:17-18을 설교했다. 한기형 목사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머니이자 목사의 아내들”이라며 “어머니의 기도와 사모님들의 기도는 매우 귀하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선한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큰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것

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예배는 한기형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오후에 변명혜 교수(ITS)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 1강’을 강의했다. 변명혜 교수는 자신이 목회자 사모로 사역을 하던 시절 이야기를 곁들여 사모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강의를 했다. 변 교수는 “사역을 함에 있어 누구를 위해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사역은 부르신 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역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의 강의에 이어 한진주 사모가 캘리그라피 강의를 했다. 저녁시간에는 박운송 목사가 ‘분노관리’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기도회를 가졌다. 둘째날 오전에는 순례길 체험시간을 가졌으며 변명혜 교수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 2강’을 강의했다. 이어 신혜원 사모가 하브루타 강의를 했다. 이어 간증시간을 가진 후 폐회예배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심리학사’ 과정 최종승인 받아

ESL 영어 교육과정에서부터, 상담학 박사과정까지

데이브레이크대학교(DBU, 총장 오재은 박사)는 학부과정 심리학과 심리학사 과정이 미국 연방정부 학교승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개설되었다고 발표했다. 학위명은 B.A. in Psychology(심리학과 심리학사)이며 상담심리전공(Counseling Psychology), 아동 청소년 발달과 가족전공(Child, Adolescent, and Family Studies)를 교육하게 된다. 이로써 데이브레이크대학교는 ESL 영어 교육과정에서부터, 심리학 학사, 상담학 석사, 석사 후 과정, 상담학 박사, 박사 후 과정까지 세계최고수준의 상담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모든 학위 과정과 수련과정(인턴쉽, 레지던트쉽)을 골고루 다 갖추게 되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상담학 석사과정(M.A.),

상담학 박사과정(Ph.D), 상담학 석사 후 과정, 상담학 박사 후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전공분야가 있다.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Marriage and Family Therapy): 미국내 50개주에서 결혼과 가족치료 자격면허 취득 응시가 가능한 COAMFTE 승인과정 △이마고부부관계치료 전공(Imago Relationship Therapy): 국제이마고관계치료연구소 IITI 승인 국제공인 이마고관계치료전문가 자격취득과정 △성치료 상담교육 전공(Human Sexuality and Sex Therapy): 미국 성치료사협회 AASECT 승인과정

오재은 총장은 “우리 데이브레이크대학교는 이제 종합대학교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 앞으로 새로운 학과, 예를 들면 한류학과 K-Culture Studies

와 전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물론, 우리 학교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까지, DBU 분교와 DBU-CFTC 아동청소년 부부가족상담센터를 세워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www.daybreak.edu.edu를 참고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탈북민 미국 정착 지원을 위한 자원 나눔 원탁회의, KFAM 참석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탈북민 지원과 관련한 자원, 정보, 서비스, 사례 및 교환 나눔을 위한 원탁회의가 지난 18일(금)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혹은 앞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한 자리로, 미 국무부 줄리 터너(Julie Turner)북한인권대사가 주도했다. 이 원탁회의는 탈북민들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KFAM(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의 제니퍼 오 부소장과 김선희 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디렉터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탈북민 지원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KFAM은 2017년부터 탈북민들에게 재정 지원, 상담,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회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민을

돕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터너 대사는 “이번 회의가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와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내 다른 기관들의 활동을 발견하며, 자원 교환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는 이민자, 난민, 그리고 기타 취약 공동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포럼으로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탈북민 지원 서비스를 확장하고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다. KFAM은 그동안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원탁회의는 탈북민의 미국 정착을 돕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로 갈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늘까지 끌어올려서 예수님 옆에 앉히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황샘 선교사(호주)가 선교도전시간을 인도했다. 첫날 집회는 한기홍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며 마쳤다. 둘째날 오전예배는 조영훈 목사(BSH)가 설교했다. 그리고 주제강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강의는 송상철 목사(GSGM-새한장로교회)가 ‘전도 및 양육’, 김경식 목사(GSM)와 김상돈 목사(WVS)가 ‘동역 및 케어’, 박현리 선교사(UBF)와 송제임스 총장(미드웨스트대학교)이 ‘자비량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날 저녁집회는 박선영 집사(은혜한인교회)가 특별 찬양했으며 황승주 목사(이름회장)가 설교했으며 임성의 선교사(파라과이)가 선교도전 시간을 인도했고 한기홍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셋째날 오전 집회는 손아브라함 목사가 기도했으며 김황신 목사(GMI EM)가 설교했다. 이어 열린 주제강의는 한기홍 목사가 ‘선교적 모델 교회 방안’, 이재환 선교사(컴미션)가 전방개척선교, 김정환 선교사(선미니스트리)가 ‘양방향 세대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저녁집회는 한도수 선교사(브라질)가 선교도전을 인도했고 지경 집사(은혜한인교회)가 특별찬양, 최석봉 목사(면목동 대망교회)가 설교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믿음장로교회, 가스펠 콘서트

믿음장로교회(담임 박상훈 목사)는 찬양 사역자 강찬과 신현미를 초청하여 11월 3일(주일) 오후 5시 믿음장로교회(1209 W Front St, Lincroft, NJ 07738)에서 개최한다.

▲ 문의: 732-213-5856

윤세웅 박사의 제6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Faith Theological Seminary와 뉴욕신학대학교는 윤세웅 박사의 제6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11월 11일(월) 오전 10시 레오나드 연합장에서 개최한다.

▲ 문의: 516-487-7900

뉴욕목사회, 정기총회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11월 12일(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 시무)에서 제53회기 정기총회가 열린다.

▲ 문의: 한필상 목사 201-675-9591, 김정길 목사 917-682-4566

윌블레스(Willbless), 댄스워십페스티벌

음악과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의 시간



댄스워십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나와 찬양하고 있다

윌블레스(대표 김장인 목사)는 10월 26일(토)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 시무)에서 댄스워십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교회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음세대들이 한데 모여 믿음을 나누고 응원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댄스워십페스티벌을 준비한 김장인牧사는 “다음세대들이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특히 뉴욕 지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홍석 목사 기도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아비가일 류 (뮤지컬 배우) 사회로 진행됐다. 아비가일 류는 I'm A Star (From "Wish"), '십자가 그 사랑이'를

페스티벌의 오프닝 송으로 들려주어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다. 이어 하이 헤븐(Hi Heaven), 뉴욕효신장로교회 청년부 Now Move 댄스로 진행됐다. 퀸즈한인교회는 합창(Good Sprouts)으로 아름답게 찬양했고 부목사들이 특별출연하여 댄스를 선보여 생동감을 더해 주었다. 또한 퀸즈장로교회 하람예찬 Fresh팀의 Above all의 워십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선사했고 Flow팀 은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워십을 선보였다. 마지막 순서로 모든 출연팀이 다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며 강단 위에서는 Hi Haven이라고 새겨진 하늘색 풍선이 내려와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격을 선물로 안겨주었다. 모든 순서는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의 마침 기도

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협, 제 50회기 정기총회 후 사진 촬영 했다

뉴욕교협, 제 50회기 정기총회

신임회장 허연행 목사, 부회장 주효식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 50회 정기총회가 10월 29일(화)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정관호 목사(법규위원장) 인도로 시작한 1부 예배는 기도 황규복 장로(증경 이사장), 설교 윤세웅 목사(신학윤리위원장), 헌금기도 이조연 이사장, 축도 김용걸 신부(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윤세웅 목사는 '생명책 (계 13:8)'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생명책은 요한계시록에 일곱 번 언급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에 따라 교회 협회가 그 전통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의장 박태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회의는 개회기도 김명옥 목사(공천위원장), 총무 유승례 목사의 회원점명이 있은 후 의장의 개회선언 후 회원채택에 이어 총무가 전회의록을 낭독했다. 박태규 목사는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했으나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점에 송구함을

느끼며, 50주년을 맞아 교계가 하나되어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모든 교회와 교협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선출된 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허연행 목사, 부회장 주효식 목사, 평신도 부회장 손성대 장로, 이사장 송윤섭 장로, 감사는 김영한 목사, 이종명 목사, 조동현 장로.

신임회장 허연행 목사는 "시대적 요청이 안정과 변화"라고 말하며 "관계와 재정적 안정을 기반으로, 교협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커뮤니티의 염려를 해결하며, 선배들이 닦아온 기초 위에 교협이 해야 할 일들을 시대에 맞게 하나씩 진행하려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수고한 이조연 이사장, 유승례 목사, 김명옥 목사, 정관호 목사, 김홍석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모든 순서는 신임회장의 폐회선언과 안창의 목사(증경회장)의 기도

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ARPC 북동노회(NEP)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

뉴욕효신장로교회, 양군식 목사 안수

ARPC 북동노회(NEP-회장 빌 서덜랜드 목사)는 10월 17일(목) 오후 7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김광선 목사 시무)에서 양군식 목사 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뉴욕효신장로교회 김광선 목사는 '목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딤후 1:12)'라는 제목으로 "소명, 성품, 말씀을 통해 사역자 한 명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설교했다.

이날 안수를 받은 양군식 목사는 1989년 유학생 신분으로 뉴욕효신장로교회에 등록해 결혼하고, 평신도로 봉사하다 시무장로로 섬겼다. 이후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로 사역하다가 이날 목사안수를 받았다.

김광선 담임목사는 "교회 역사와 함께해온 귀한 사역자이기에 많은 교우들의 축복 속에 목사안수를 받게 하고 싶었으며, 창립 4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 출신 1호 목사를 배출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고 말했다.

양군식 목사는 "부족한 제가 뉴욕효신장로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저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며 "남은 생애 오늘이 소명을 기억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으며,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사제공 :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욕실버미션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후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 했다

뉴욕실버미션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선교찬양및 제 38기 종강 & 온두라스 단기 선교사 파송예배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는 뉴욕실버미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7일(주일) 오후

5시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 시무)에서 감사예배, 선교찬양 및 제 38기 종강 & 온두라스 단기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김재열 목사는 "뉴욕실버선교는 지난 20년간 785명의 훈련생을 배출하고 1,385명의 단기선교 멤버들이 봄, 가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역해 왔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뿌려진 이 씨앗들이 싹을 틔워 믿음, 마지막 생명을 다해 감당할 사명은 실버선교뿐이라며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 한다"고 인사했다.

김경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박현영 목사(이사 퀸즈순복음교회), 설교 방지각 목사(이사 실버미션 후원회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막 2:1-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방지각 목사는 "중증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 전도는 사랑과 동정심이 있는 믿음, 확신이 있는 믿음, 협동하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뉴욕실버미션 38기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증여하고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 선교훈련원 1기 수료생 윤석남 권사에게 공로패를, 뉴욕교회(김성기 목사), 신광교회(강주호 목사), 롱아일랜드성결교회(이상원 목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최윤섭 목사(선교원장) 중심으로 35명이 온두라스 단기선교사 파

송선서를 했다. 또한 이지용 목사(이사 뉴욕실버이사회 서기)와 김용철 목사(뉴저지 실버 이사장)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1부 예배는 박미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황규복 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2부 찬양축제는 기도 윤금중 목사(앳별중앙교회), 뉴욕 센트럴장로교회 찬양대, 뉴욕·뉴저지 Pan Flute Mission, 롱아일랜드 성결교회 찬양대, 프라미스 국악찬양선교단, 뉴욕실버미션 찬양 선교합창단, 뉴욕장로성가단 등 뉴욕동역 단체들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다. 마지막 곡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다'를 모든 출연진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했으며 모든 순서는 노재화 목사(전 성결대학장)의 마침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문화 변종의 미래로...

(1면에서 계속)

1980년대 심대였던 내게 마돈나의 히트곡들에 대한 분석보다 더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역사, 예술, 철학이라는 더 깊은 우물에서 영감을 얻도록 만든 프랜시스 웨퍼 같은 사상가의 작품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1976)에서 웨퍼는 현대 사상을 형성한 폴 제잔, 존 케이지, 그리고 임마르 베르그만의 작품을 고찰한다. 나는 그 예술가들의 그림을 본 적도, 음악을 들어본 적도, 또 영화를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사례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돈나의 히트곡 "Papa Don't Preach"나 "Like a Virgin"의 가사를 면밀히 읽는 것보다 훨씬 큰 가르침을 얻었다.

웨퍼는 문화적 변종과 관련하여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접근 방식의 거장이었다. 그의 오래되지 않은 과거, 우리의 집단적식 속에서 성숙할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레트로"로 간주되는 문화적 시금석을 살펴봄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노래, 영화, 책, 그림 또는 기타 작품 등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문화적 유물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하는 변종의 약점

레트로 문화 변종은 또한 지혜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긴밀하게 일치한다. 잠언 1:5는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며 명석한 자는 지도를 받으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한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구하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의 문화 참여는 최신 대중문화에만 집중함으로써 도리어 정반대의 길을 따랐다. 최신 노래, 영화 또는 입으로 전해지는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변종학자는 신학적 연관성을 찾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대화의 출발점을 찾는 데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몇 가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대중문화의 본질은 일시적이다. 오늘날 대중 의식을 지배

하는 트렌드가 내일이면 잊힐 수 있다. 트렌드에 집착하는 변종 작품은 나오자마자 바로 잊힐 수 있다. '윌터우먼'에게서 권한 부여와 희생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거나,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구원 서사(redemption arcs)를 탐구하는 기독교 사상을 한번 상상해 보자. 이런 식의 분석이 잠시나마 가치 있는 대화를 불러일으킬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릴 것이다. 윌터우먼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작품이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나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 소설과는 달리 인간의 고통이나 은혜의 복잡성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중문화 연구(engagement)는 종종 삶과 신앙의 진짜 중요한 질문보다는 권한 부여나 개인주의와 같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적지 않은 기독교 평론가들이 구원의 서사나 도덕적 교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작품을 분석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억지스러울 때가 많다. 슈퍼히어로 영화는 폭력과 은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전으로 인정받은 작품처럼 인간의 죄, 고통 또는 은혜의 복잡성을 완전히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최신 문화적 트렌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과도한 상황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 결과 복음을 아예 현대 팝 서사에 맞게 희석하거나 단순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당면하는 위험은 세상과 관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나 그리스도를 통한 총만하고 풍부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기는 커녕 기독교를 일련의 도덕 원칙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 3년이 지났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완다비전(WandaVision)'에 대한 기독교 분석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그 영화를 놓고 슬픔과 현실 애곡이라는 주제를 탐구한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중에서 영화가 표현하는 상실에 대한 탐구를 고통 및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함으로써 신학적 토론으로 이어졌던 글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처럼 진정한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성찰을 위한 지혜를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와 다르지 않다.

레트로 문화 변종의 풍성함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열중하는 접근 방식과 대조적으로, 레트로 문화 변종은 더 깊고 성찰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에 주의를 돌리면 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을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씨름해 온 역사 전반의 위대한 사상가, 작가, 예술가간의 지속적인 대화, 한마디로 위대한 대화(Great Conversation)속으로 초대한다. 이 대화는 수세기에 걸쳐 문화를 넘나들며 진실, 아름다움, 미덕, 정의, 현실의 본질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위대한 지성들과 교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광범위한 대화를 창출할 수 있고 그 결과 인생의 해답을 갈구하는 세상에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종가의 한 명인 C. S. 루이스는 종종 고전이 주는 지혜에 의존했다. 루이스는 인간 폐지에서 현대 교육 시스템을 비판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 문화를 참고하기보다는 고전 철학과 근대 이전 윤리에 깊이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구축했다. 루이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기독교에 근거해서 도덕적 사

고를 형성한 중세 신학자 같은 사상가들과 폭넓게 교류한다. 위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루이스는 현대 세속주의에 대한 심오한 비판을 제시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작품은 깊은 공감을 얻고 있다. 마찬가지로 G. K. Chesterton 및 페퍼 같은 사상가들은 그 시대 위대한 사상을 논하기 위하여 레트로 변종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역사, 철학, 예술을 활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일관성과 더불어 진실성을 입증했다. 광범위한 사상과 나눈 대화에 뿌리를 둔 그들의 변종은 청중의 즉각적인 관심사뿐 아니라 존재, 도덕성,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같은 깊고 지속적인 질문까지도 다루고 있다.

레트로 문화 변종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삶의 속도를 늦추고, 현재 순간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수세기 동안 문명을 형성해 온 진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신 트렌드가 아닌 더 깊은 것에 뿌리를 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다음 아니라, 지속적인 복음의 진리와 선조의 지혜에 근거를 두는 믿음이다.

(다음 호에 계속)
by Joe Carter, TGC



교회 소셜 미디어로 소통하는 방법 세미나에서 KCMUSA 이학준 IT팀장이 강의하고 있다

교회 소셜 미디어로 소통하는 방법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스타그램 사용법 강의

KCMUSA(이사장 민종기 목사)는 교회, 소셜 미디어로 소통하는 법 세미나를 “온라인 세대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하늘꿈 교회(담임 정인석 목사)에서 가졌다. 민종기 목사의 지도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이학준 KCMUSA IT 팀장이 강사로 나서 △소셜 미디어 전략(Social Media Strategy),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Digital Communication), △인스타그램 사용방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인스타그램 회원가입부터 스토리, 피드, 릴스, 라이브 등 사용방법에 대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준 팀장은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의 변화는 매우 빠르다. 예전에는 소식을 주고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요즘은 바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소통방식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요즘은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소통이 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표현방식이 다양해졌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이 있는데 교회마다 맞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의 쇼츠에 해당되는 릴스에는 짧고 감동적 이야기, 교회행사 하이라이트, 성경구절 및 목상을 올리는데 사용하면 좋고 스토리는 긴급 기도요청, 일상적인 교회생활, 성도와 상호작용, 그리고 피드는 교회공동체이야기 글과 이야기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정인석 목사의 지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생명의전화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생명의전화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예배

“생명의전화로 불행한 사건을 막는데 도움 되길”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는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0월26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가졌다. 박다윗 목사는 “지난 26년 간 생명의전화를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지난 26년간 기도와 후원금으로 격려해주신 교회와 개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사역에 동참해준 상담봉사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생명의전화에 전화를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미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며 “남가주지역은 물론, 하와이, 뉴욕 달라스 등에도 오고 멀리는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도 전화가 온다. 생명의전화 사역으로 인해 한인사회가 불행한 사건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 박다윗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동원 목사(제6기 상담봉사원) 대표기도, 권셀비 전도사(제26기 상담봉사원 회장) 성경봉독, LA한인회 합창단(지휘 장상근) 특별찬양, 박일영 목사(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마 9:35-38)’ 제목의 설교, 장상근 전도사 특송, 감사장 전달, 이정현 목사 축사, 봉사자 감사장 및 메달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심진구 목사(미주예문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EK 갤러리에서 폴아트리 개인전 열려

목사이자 화가인 폴 아트 리(Paul Art Lee) 목사의 제9회 개인전이 오는 10월 26일(토)부터 11월 16일까지 LA한인타



폴아트리 개인전이 EK 갤러리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 아래 타원은 폴아트리 목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KAPC 청소년지도부 주관 이슬람바로알기 세미나가 줌으로 열렸다

KAPC 청소년지도부 주관 이슬람바로알기 세미나

“다음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총회장 권혁천 목사) 청소년지도부가 주관한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가 ‘밋 같이 숨어 오는 미래’라는 주제로 10월 24일(목) 오후 4시30분 줌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고신남 목사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했다. 임영건 목사 사회와 권혁천 총회장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는 고신남 목사가 이슬람의 태도와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 경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이슬람에는 헌법에 해당하는 샤리아법이 있다. 그들의 목표는 샤리아법으로 세상이 통치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 불리

는 것이 있는데 정작 지하드는 약탈, 테러,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의 구원조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알라의 선택, 둘째 착한 일을 많이하는 것, 셋째 성지순례를 하는 것인데 3가지는 죽어야만 알 수 있다. 넷째 알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다. 유럽 아프리카 호주 미국에 이슬람 세력이 확산중이다. 한국에서 이슬람의 인구는 37만명이며 노동자, 유학생이 주계층”이라 설명했다. 고신남 목사는 “오늘날 우리교회를 볼 때 다음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 특별히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신앙 교육을 계승할 때 이슬람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에서 한태욱 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말씀 목상을 통해 받은 은혜로 나눔의 시간 가져야”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이 10월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라클 LA교회(담임 신병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한태욱 커피브레이크US 한인 대표가 효율적인 소그룹의 원리, 성경 발견 학습, 인도자의 태도에 대하여 강의했으며 소그룹을 통한 전도에 대해 계승전도사(Coffee Break Ministry 양육팀장)가 강의했다. 한태욱 대표는 ‘인도자의 태도’ 시간에 “소그룹 인도자는 섬기는 자이고 소그룹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이자 함께하는 자”라며 “커피브레이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묶

여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인도자의 첫 번째 자질로 꼽는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인도자는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 아닌 토론하는 가운데 소그룹원들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도 소그룹원들을 후원할 때 소그룹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커피브레이크를 인도할 때 적용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주석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공부하면서 만든 질문보다는 말씀 목상을 통해 받은 은혜로 보충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엔 있을 LA아트쇼에 저희 갤러리가 목사님을 후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6일(토) 오후 6시에 열린 오프닝 리셉션에는 폴 목사의 지인들을 비롯한 미술작가들이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개인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폴 아트 리 목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 카로셀 듀르브레 아트페어에 참가했으며 23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르 사롱 드론 전시회에 그의 작품이 전시가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비영리 단체 설립 및 Tax Exempt 신청 무료 공개 강의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운영 무료 공개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렌지 카운티에서 현장 무료 강의로 진행된다. 강사는 제임스 구 교수(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와 그레이스글로벌비전스쿨 대표)이다. 본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 사역으로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 문의: (949)667-0264(J. Lee, JDSN) (714)393-4595 (ICMM Center) (문자가능)

코너스톤교회, 할리웃 촬영 감독 스티븐 오 초청 전도 간증집회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11월 3일(일) 할리웃 촬영 감독 스티븐 오 초청 전도 간증집회를 한(오후 4시)과 영어(오후 7시)로 개최한다. 스티븐 오(Stephen Oh) 집사는 ‘미션 임파서블 7’, ‘존윌 4’, ‘스타워즈 9’, ‘007 노타임 투 다이’외 다수의 영화 촬영을 맡았던 할리웃 특수촬영감독이다. ▲ 문의: (310)530-4040

비전케어 서부지부 무료 아이캠프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서영석)는 오는 11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한인타운내 월셔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사랑의 아이캠프’를 개최한다. 눈 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지만 경제적인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인들은 연령대 상관없이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면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위해 안경을 무료로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 (213)215-3420

뮤지컬 도산 시즌4
무대 예술인 그룹 극단 시선(대표 클라라 신)이 주최하는 뮤지컬 도산 시즌4 공연이 11월9일(토)과 10일(주일) 양일간 오후 3시와 7시30분에 월셔이벤극장에서 열린다. 티켓은 온라인(seasun-tag.com/2024-tickets)과 전화(424-438-0363)로 구입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 단체 구입 시 30% 할인 가능하다.



세계선교교회 바자회(사진오른쪽 아래 원안은 김창섭 담임목사 부부)

세계선교교회 지역을 섬기는 바자회

“본 수익금은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 할 것”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는 지역을 섬기는 바자회를 10월26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파킹랏에서 열었다. 김창섭 목사는 “한 달 전부터 교인들과 모여서 준비했다”며 “해마다 바자회를 열었고 바자회를 통해 생긴 수익금으로 LA지역이 10-13명이 학생들에게 1000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바자회는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바자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이라며 “교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바자회는 의류, 잡화, 갈비, 오코노미야끼, 핫도그, 고구마,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참깨볶음, 갯잎장아찌, 커피 등을 판매했다.

〈박준호 기자〉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열린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파사데나장로교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개최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10월 27일(주일) 오후 5시30분에 열었다. 본 교회 음악디렉터 김종숙 사모는 “이번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오페라를 잘 아는 사람들과 낯설어하는 사람들 모두 즐겁게 감상할 수 있게 오페라 명곡들을 엄선해서 기획했다”며 “오페라가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김종숙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콘서

트에는 소프라노 김종숙, 김주혜, 김시연, 메조소프라노 채주원, 테너 오우영, 전승철, 바리톤 권상욱, 피아니스트 윤경미, 바이올니스트 김정아, 강희선, 한지인, 첼리스트 김원선이 출연하여 고품격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소프라노 김종숙이 출연자들의 무대가 시작하기 전 곡 설명을 곁들여 청중들이 보다 쉽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박준호 기자〉



“해외 교계와 원심적 선교” ...

급변하는 정세, 새로운 통일선교 전략은

대북관계가 냉각되고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는 등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통일선교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원심적 선교’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29일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한동협)는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한국교회 통일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에 주발제자로 나선 하충엽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교수는 기존 전략으로는 더이상 통일선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과거엔 한국교회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방북했던 것이 일반적 방식이었다. 이는 신병전 강화와 북한의

적대적 태도로 더이상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활성화된 해외 국가의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주목한 것은 브라질 교회였다. 그는 “기독교인이 많고 선교를 활발히 하는 브라질 등 해외 국가의 교회들과 긴밀히 협력해 통일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한국 교회와 브라질 교회가 만나 선교의 소명을 나누고 서로의 역할을 깨달으며 함께 협업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기독교인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7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브라질 교회는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교회의 해외 선교사 파송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교수는 북-러 밀착이 북한선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 사람이 러시아에 많이 유입될수록 러시아 기독교인들과 밀착할 접촉점이 증가한다”면서 “자연스레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구심적 선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정베드로 통일목회개발원 전문위원은 한국교회의 지속가능한 통일선교 전략 수립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통일·북한선교단체는 북한의 자유권 개선만을 강조하거나 대북 인도적 지원만을 중시하는 편향적인 노력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통일 선교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사역 주체들의 연대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은 “북한인권 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돼 북한주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권리를 실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북한인권 사역과 한국교회 통일선교 사역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인권이 교회의 사역과 구별되거나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돼 함께 사역해야 할 가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가정’ 메시지 주력... 성숙한 집회문화 빛났다

주최측, 순서 줄이고 기도에 집중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편향된 인권 옹호와 동성혼 합법화 분위기로 치닫는 세대에서 성경의 창조질서와 함께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켜 나가겠다는 크리스천들의 선포와 다짐이 담긴 기도는 서울 한복판을 가득 메웠다. 역대급 규모의 행사가 조직적이면서도 차분하게 진행됐고, 고향과 구호 대신 손팻말로 시민들에게 한국교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행사 내내 사고나 돌발상황이 접수되지 않았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 서울역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국회 앞과 여의대로를 뺀 전국 110만명(주최측 추산)의 목회자와 성도가 모였다. 초교파적으로 전국 교회에서 모인 대규모 인원이 서울 도심에서 연합예배를 드린 건 처음이다. 주최 측은 집회 당일 진행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스크린을 여러 곳에 설치해 메인 무대의 영상을 송출했고, 간이화장실과 의무실을 배치해 참석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기도회 이후 1시간 동안 찬양 예배를 진행하며 질서 있는 해산을 유도했다. 참여 교회

는 사고나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깃발을 준비해 교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주변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홍호수 사무총장은 “현장에 110만여명이 참석했음에도 큰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번 연합예배의 요구 사항과 성명서를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실제적인 대



예장통합-장석교회, 농어촌교회 직거래 장터 개최

지역 주민 위한 전도의 장으로도 활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영길 목사) 총회가 농어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사진)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노원구 장석교회(이승헌 목사)에서 열린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14개 농어촌교회가 참여해 과일 김치 달걀 참기름 등 농어촌 성도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안 마련을 위해 연구소·재단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설교 외 다른 예배 순서를 최소화하고 기도회 집중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고 축사, 격려사 등 일반적인 순서도 생략했다. 대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이미 통과된 미국 영국 독일 사회가 직면한 반성경적인 성오염 실태를 공유했다. 해외에서 초청된 연사들은 무대에 올라 각각 자국 교회의 방관 아래 가족이 해체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억압받는 현실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일런스 파케팅(침묵시위)’을 펼치기도 했다. 과격한 표현 대신 조용한 행동으로 한국교회의 뜻을 우리 사회에 전하자는 취지에서다.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는 “한국교회가 ‘반성경적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거룩한 자리로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거룩한 청정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강력한 공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이단대처’ 위해 공동 전선 펼친다

29일 상임회장 교단 총무·이대위원장 연석회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이단 대처를 위해 ‘한교총 이단대책위원회(한교총 이대위)’를 가동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교총은 지난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바른신앙진흥위원회를 이단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상임회장 교단 총무와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

를 연 한교총은 ‘한교총 이대위’ 가동을 보고하고 정례 모임을 하기로 했다. 한교총 이대위에는 주요 교단 이대위원장이나 교단이 파송한 이단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상임회장 교단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14개 주요 회원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한교총 이대위는 정례 모임

을 통해 각 교단 이단 대책과 규정, 해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단 규정 과정에서 회원교단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는 갈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한교총 회원 교단들은 이단을 규정하거나 규정한 이단을 해제(해별)할 때 교수와 이단 전문가들이 참여해 무척 신중하게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다”면서 “하지만 다른 교단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이단 규정 과정에서 교단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한교총 이대위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2020년 4월 ‘이단 관련 처리 기준’을 정한 바 있다. 한교총은 △개인이거나 단체에 대한 이단 판단은 회원교단의 고유 임무이고 한교총은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회원교단에 속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이 다른 교단의 교리와 신앙에 배치돼 이단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단에서는 내용을 기술해 우선 상대 교단에 처결을 요청하기로 한다는 등이다. 이를 통해 이단 판단 권한이 각 교단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한교총 회원교단의 갈등을 피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분당우리교회가 심는 ‘꿈 너머 꿈 DNA’ ...

경상지역 목회자 한 자리에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에서 진행하는 ‘꿈 너머 꿈 프로젝트’ 경상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28일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수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프로젝트에 선정된 경상지역 17개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소그룹 멘토링을 진행했다.

꿈 너머 꿈 프로젝트는 2년 전 분당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분립 개척된 29개의 교회에 이어 건강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운동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총 8개 교회를 선정해 후원했고 올해부터는 경상도 전라도 등 권역별

로 미래자립교회를 선정해 후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100명 미만의 교회 중 개척 또는 청빙을 받은 지 10년 이내의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가 대상이다. 올해 경상지역에서는 103개 교회가 지원했으며 이 중 17개 교회를 선정했다.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멘토단은 네 차례에 걸쳐 대구

와 부산에서 지원자들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각 교회의 상황과 필요를 확인하고 일선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을 위로했다.

이 목사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회들이 함께 힘을 얻고 성장하며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개척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피종진 목사 1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2(토) 오전 4(월) 오후	서울 레이크호텔(석준호 목사) 장요한 목사 010-2393-0616 한일산기도원(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 열방선교회(총재 노영근 목사, 대표회장 허은혜 목사) 010-3028-1545
5(화)오후 6(수) 7(목) 오전	인천 새빛교회(양우식 목사) 010-8839-8899 송주 반석교회(고광호 목사) 010-2391-3004 화성 근영중앙교회(한영희 목사) 여성총재 주대 취임식 감사예배 주최 : MIRACLE 국제선교회(대표회장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8(금) 오후 9(토) 오전 11(월) 오전	양산 한계교회 트리플교회성경세미나(대표 오광석 목사) 010-4444-1925 국제선교회(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서울기독교연합회관(Special Room) 주최 : 7천왕사 발대식(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한요한 목사) 010-9578-0049
12(화)~14(목) 15(금) 오전	World Mission MT in Asia 남양주 창조교회(김태곤 목사) 010-9492-1770 주최 : 한국기독교 153부흥사회의회(대표고은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김태곤 목사)
16(토) 오전 17(주) 오후 18(월) 오전	동두천 영광교회(민용기 목사) 010-2254-3927 (최영광 목사) 010-2628-2002 서울대학교 ABK 사무국 총동창회 문화행사 장소 : 서울예술의전당 Concert Hall 서울 기독교100주년기념회관 주최 : 한국기독교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010-5372-1691
18(월) 오후 18(월)저녁 ~19(화)오후	오산리 국제금식기도원(김원철 목사) 주최 : 성군자 목사 화성 근영중앙교회(한영희 목사) 미래국제선교회 연합 축복성회
20(수) 오전 22(금) 아침 23(토) 오전 24(주) 25(월)~26(화)	성남 은총교회(노연호 목사) 010-3065-0658 대한민국 국교회(전기교회),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사무총장 정재현) 010-9672-9700 서울 국제교육원(원장 장남철 박사) 010-2252-0675 금단제일교회(장사무열 목사) 010-7733-9106, 새성전 임당 Congratulatory Message 충주 중앙제일교회(유정수 목사) 010-2067-8303

제242차 해외성회(242nd Overseas Assembly)

28(목)~30(금) 미국(U.S.A) 뉴욕 미국(U.S.A) 뉴욕 미국(U.S.A) 뉴욕
12.1(주)~5(목) 인천공항 17:00 도착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71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메트로) Fax. 02)401-7770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6)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MZ 세대를 향한 선교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며, 이들은 다른 세대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가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개인의 경험과 성장을 중시하는 MZ세대는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 접근법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교회는 MZ세대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들이 선교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그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이다. MZ세대는 인터넷과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소통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디지털을 통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소통하려 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디지털 선교 플랫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선교지 소식을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선교 단체가 SNS 채널과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캠페인을 참여하거나 주도하도록 한다. 해시태그 운동(#PrayForMission, #GlobalGospel)이나 영상 제

작 챌린지를 통해 MZ세대가 자발적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메타버스 활용을 통해 그들의 탠트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메타버스 예배나 기도 모임을 통해 선교 현장과 연결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공간에서 선교지 투어를 경험하고 현장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은 그들이 이런 사역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일부 교회에서는 적극적인 젊은 세대의 선교참여를 유발하였다.

둘째로, 그들은 가치 중심적이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세대이다. MZ세대는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환경, 인권, 빈곤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원한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에 소홀했던 세대들에게는 이런 관심이 너무 세상 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세대들에게는 기성세대의 교회가 무책임했다고 여겨진다.

그들의 관심을 사회적 선교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을 것

이다. 선교 사역에 환경 보호, 빈곤 퇴치, 교육 지원 등의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하는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선교지를 돕기 위한 공정무역 프로젝트를 청년들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 프로젝트도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선교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소셜 벤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로, 그들은 경험 중심의 학습과 성장을 추구한다. MZ세대는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강의나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하기를 선호한다.

그런 세대들에게는 비전 트립과 중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1-2주간의 비전 트립을 통해 선교현장을 탐방하게 하고, 중단기로는 6개월이나 1년간 현지에서 봉사하며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이들을 위해서는 멘토

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선교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과 청년들을 연결해 멘토링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배우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해야한다. 단순히 젊은 인재들을 필요한 사역의 도우미 정도로 받아 사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 내 선교와 봉사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해외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를 연결하여 청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로, 그들은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추구하는 세대이다. MZ세대는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원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서는 유연한 참여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장기 프로젝트 외에도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교지를 위한 일일 기도 모임, 후원 캠페인, 짧은 봉사 활동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작은 그룹 공동체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청년들이 선교와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각 그룹은 선교지나 사역 분야를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MZ 세대는 글로벌 감각과 다문화 수용성이 강하다. MZ세대는 해외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에 개방적이며, 글로벌 감각을 가지

고 있다.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즐기며 다문화 환경에서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글로벌한 세대에게는 다문화 선교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자. 이민자나 난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미주 사회에서는 주위에 있는 타문화권, 타종교권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선교 단체와 협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해외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글로벌 선교 포럼이나 컨퍼런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자. 청년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동향을 배우고, 글로벌 청년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국제 컨퍼런스나 포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국제 모임에는 기존 리더들만 참여하는 모임이 되어 왔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자.

여섯째로, 그들은 재정적 부담과 실용적인 고민에 민감하다. MZ세대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며,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선교가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자신들을 위해서는 비싼 용품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이 지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

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선교 장학금이나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와 연결된 선교 프로그램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직업군과 연결된 선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의료 선교, 교육 봉사, IT 기술 지원 등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활용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MZ 세대에게는 비용 절감을 위한 팀 선교가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케어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도울 수 있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가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선교 접근법을 통해, 교회는 청년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선교,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프로젝트, 중단기 선교 프로그램, 멘토링과 소그룹 공동체 등은 MZ세대가 선교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교회는 MZ세대가 가진 잠재력을 선교에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워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MZ세대,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 하느냐" (KWMA 한국선교지도자포럼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7g3O1z-80E>
dr.yongcho@gmail.com

엘리사는 왜 나아만의 이상숭배를 허용했을까?

믿음과 삶의 현실이 주는 책임 사이에 갇힌 그들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하다. 병든 사람이 과분한 기적으로 고침을 받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확신하고 지금부터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선언한다. 해피엔딩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하지만 나아만의 다음 요구는 익숙한 스토리라인을 호기심 어린 전개로 단숨에 바꿔버린다. 시리아 왕의 오른팔이기에 그는 시리아 예배에 참석해야만 한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왕과 함께 거처 신에게 무릎 꿇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한다.

나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아만은 벌써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변명부터 생각하는 걸까? 그는 하나님의 질투와 거룩함에 대한 이전의 선언을 보지 못한 걸까? 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당연히 엘리사가 말씀의 망치를 그의 머리에 내리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평안히 가라”(19절)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고? 표면적으로 볼 때, 엘리사가 이상숭배를 묵인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더 많은 것이 들어있다. 엘리사의 반응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열왕기를 읽으면서 배울 점을 정리해 보자.

엘리사의 반응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여준다

나아만 이야기의 원래 독자가 몇 년 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을 이해하면, 이 이상한 반전은 좀 더 말이 된다. 이방 땅에 살았던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 했듯, 하나님의 백성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 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에 얼마나 달콤해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확인한 것이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세상(자유롭게 마음껏 순종하면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곳)과 그들이 실제로 사는 세상(이교 문화에 둘러싸여 있고 성전 제사마저 사라진 곳)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 속박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곤경을 아셨다. 나아만 이야기는 주님께서 믿음과 삶의 현실이 주는 책임 사이에 갇힌 그들의 처지를 알고 계심을 보여준다. 이방인 상사들이 바벨론 말로 저주를 퍼붓고, 식탁에는 돼지고기를 차리고, 또 이교도의 명절날이면 온갖 장식을 꾸미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그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석가 피터 라이하트는 “엘리사의 반응은 놀란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떤 점에서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에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유함을 보여주었다”라고 썼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당시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다. 우리는 다양한 질문과 씨름한다. 내 신념에 어긋나는 학교 커리큘럼을 가르쳐야 할까? 창문에

LGBT+ 스티커가 붙어 있는 직장인데, 그만둬야 할까? 주일에 쉬겠다고 하면 상사가 이해할까? 현대 사회를 살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날 수 있다(요 17:14, 15).

게하시의 죄가 나아만의 진짜 예배를 드러낸다

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나아만의 예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무릎 예배이다. 다윗은 시편 51:17

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상한 영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나아만이 떠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를 쫓아갈 때, 이 진

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뒤집힌다. 여기서 우리는 시리아 왕의 오른팔 나아만과 엘리사의 오른팔 게하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본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선물을 거부했지만,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은밀히 값비싼 물건을 받고는 엘리사에게 거짓말했다.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은 꿇었지만, 그의 진짜 마음이 향한 곳은 아름다운 옷과 은이었다. 조금 전 나아만에게 평화를

를 선언했던 엘리사가 게하시의 불순종을 저주한다. 그 결과,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후손에게 붙었고, 그들은 영원히 예배에서 제외되었다. 이 둘의 대조는 주목할 만하다. 나아만과 게하시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무릎 너머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삼상 16:7).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서 무엇을 보실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수많은 게하시가 오늘도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향한 곳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은 뻣뻣한 사고 일정, 비싼 집, 정치권력, 인스타그램 악평 등 돈과 관련된 유행하는 이상들을 쫓고 있다. 또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성경적으로 느껴지는 집단의 규칙이 정한 순종으로 스스로를 위장할 수도 있다.

나아만처럼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또 동네에서 친절할 이웃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긴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을 육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엘리사보다도 이해심이 부족하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장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격려를 받기 바란다.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연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담대한 순종을 제외하지 말라

그러나 나아만이 맞은 평화로운 결말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박해를 겪은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의 성경적 예외이다. 다니엘은 배고픈 사자를 만났다. 에스더는 궁전의 규범을 어김으로 “머리가 잘려나갈!” 순간을 맞이했다. 순종으로 인해 죽기 전 바울의 몸이 드러난 것은 구타당한 흉터였다. 세례 요한은 헤롯왕의 간통을 지적했고 그로 인해 참수당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무릎과 마음을 동시에 드리고 있다. 그 결과 소유물, 지위, 그리고 건강까지 포기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담대한 순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아만이 길을 알려준다.

경건한 친구에게 물어보라. 큰 결정에 직면했을 때, 누구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객관적인 제삼자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경건한 친구는 좋은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며, 나아가서 성경적 지혜까지 제공한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선지자로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 말씀의 근원이었다. 우리에게서는 성경이 있다. 말씀을 파헤치라. 큰 신학적 질문과 그것을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지혜를 구하라(약 1:5).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릎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져가야 한다.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가까이 대답하실 것이다.

by Susan Tyner, TGC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맺은 언약을 굳게 믿고 언약 안에 있으라 (눅 1:72-77) 찬 545장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믿을 때 언약을 이루심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면 그 언약을 불신하고 버리도록 미혹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굳게 살 때 전능하신 하나

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 떠나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살지 말라. 언약을 불신하고 육신의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이루신다. 인간 중심의 언약을 이루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신다.

화 영적 생명의 빛과 사망의 어둠을 분별하며 살라 (눅 1:78-80) 찬 398장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과 사망에서 사는 사람이다. 어둠에서 살기 때문에 주인을 알 수 없고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에게 다가올 영원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일평생 사망의 생각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사는 것이고, 끝은 영원한 멸망뿐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므로 인하여 어둠이 죽음이 떠나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죽음이 벗어나고 여기서 자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생명의 빛이시다. 영적 어둠이 덮어 있는 자신에게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둠의 매임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다.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야 어둠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들 (눅 2:4-12) 찬 546장

호적하러 가는 길에 해산하여 방이 없기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아무도 그의 태어남에 관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아주 특별한 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시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하겠는가? 아주 자연스러운 시간과 환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나타난다. 오늘날 나의 삶에서 특별한 주님의 일 하심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목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눅 2:17-19) 찬 384장

목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놀랍게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여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새김으로 인하여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마리아에게는 그 말의 내용이 실상으로 있다. 듣기만 하고 새기지 않고 즉 반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망의 생각이 나타나면 사망의 생각이 이긴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

는 것이다.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말씀의 실상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사망의 생각이 내 마음에 살아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실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믿어진다. 누리게 된다.

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눅 2:25-32) 찬 320장

시므온은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를 알고 모시고 섬겨야 한다. 지식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로 살지 말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다. 말씀대로 사실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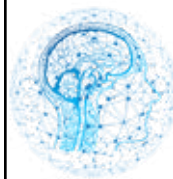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죄의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으로 간 것이다. 죄의 감동 사망의 감동을 누리지 말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구주이심을 알며 찬양한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기를 알 수 없다. 오늘날의 삶에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고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자 (눅 3:2-17) 찬 370장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죄의 종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성경에 있는 주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시는 주님임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라.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

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게 하라. 죄인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여야 한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4)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도구 활용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3편)

4. 음성 텍스트변환 도구(Speech to Text, STT)

음성 텍스트 변환 도구(Speech to Text, STT)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 TTS)과 달리, AI 도구를 활용하여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도구입니다. STT 도구를 사용하면 설교, 인터뷰, 회의, 컨퍼런스, 강좌 등 다양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자료를 텍스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오디오 소스와 함께 텍스트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STT 애플리케이션으로는 Whisper, SpeakAI, Otter.ai, AudioPen 등이 있으며, YouTube 자동 자막 기능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T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언어를 번역하거나 수집된 텍스트를 편집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목회와 선교 측면에서 STT 도구를 활용하여 설교 기록 및 자막 제공이 가능합니다. 주일 설교나 특별 집회의 설교를 녹화한 후 STT 도구를 사용해 텍스트로 변환하여 뉴스레터, 교회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STT AI 도구로 생성된 텍스트는 추가적인 편집(Post Editing)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T 도구를 사용하여 주일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으며, 실시간 자막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는 청각 장애가 있거나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STT 도구는 실시간 다국어 번역이 가능하며, 다양한 언어권의 교인이나 선교 현지인들과의 언어적 소통에

도 유용합니다.

STT 도구를 통해 설교, 팟캐스트, 동영상, 강의 등의 오디오 자료를 손쉽게 텍스트로 변환해 블로그, 기사, 도서 형태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중과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병원 채플린이나 목회 상담에서 STT 도구를 사용해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상담 내용을 검토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추적 관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인이나 기도 요청을 음성으로 수집하여 STT 도구로 텍스트화하면 기도 요청 리스트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교회 리더십 회의나 부서 회의에서도 STT 도구를 활용하여 회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빠르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선교사나 사역 관련 강의 및 세미나의 음성 및 영상 자료를 텍스트로 변환해 교육 및 훈련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며, 선교 활동 보고서나 간증도 STT 도구를 통해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텍스트 음악 또는 오디오 변환 (Text to Audio, TTA)

텍스트 음악 또는 오디오 변환(Text to Audio, TTA) 도구들은 텍스트에서 음악 또는 오디오를 만들어주는 AI 도구로, 자연어 처리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감정, 분위기, 주제, 용도에 따라 음악을 생성하는 혁신적인 예술 창작 도구입니다. 현재 알려진 도구로는 AIVA(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Artist), Amper Music, OpenAI's MuseNet, Soundraw, Ecnett Music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TTA 도구들을 활용하면 교회 행사나 캠페인 영상을 위해 텍스트로 특정 주제와 용도를 입력하여 해당 내용에 맞는 음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 선교

95.아내의 정의

‘아내’란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내’는 혼인관계에서 결혼한 남성 배우자가 상대 여성을 일컫는 말로서, 남의 아내를 말할 때는 부인(夫人)으로 부르고, 남에게 자신의 아내를 말할 때는 직접 호칭은 ‘여보’, ‘마누라’, ‘임자’ 등 이고, 지칭은 ‘아내’, ‘당신’, ‘안사람’, ‘색시’, ‘여편(女便)네’, ‘각시’, ‘집 사람’, ‘안식구’, ‘(자녀이름) 어머니’, ‘계집’, ‘마누라’, ‘안댁’, ‘처(妻)’, ‘처실(妻室)’, ‘내자(內子)’, ‘부(婦)’, ‘내실(內室)’, ‘가인(家人)’, ‘영부인(令夫人)’, ‘합부인(閤夫人)’, ‘사모님’, ‘졸처(拙妻)’, 영어로는 ‘와이프(Wife)’등으로 불려집니다.

‘아내’의 어원은 ‘안해’입니다. 아내는 안해가 변한 말로 ‘집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안(安)’은 안 쪽을 뜻하며 ‘밖’의 반댓말입니다. ‘(安)개’는 처격 조사 ‘-개’(오늘날의 ‘-에’)로 보는 설과 사람이나 물건에 붙이는 접미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내의 어원을 ‘집 안의 해(태양)’로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으나, 이는 “아내”가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좀 더 존중가자는 의미이지 어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내’란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내’라는 이름은 생각할수록 소중한 사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내라는 말처럼 정답고 마음이 놓이고 아늑하고 편안한 이름은 없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 본 ‘아내란?’ 제목으로 모아온 자료들을 편집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아내란 바가지질 끊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밥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2.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 아이들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3. 아내란 자신의 엄마가 보고 싶어도 자신이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 아내란 친정엔 남의 편이 되어 모든 물건 훔쳐오는 남편 편인 사람입니다.
5. 아내란 남편과 아이들만 보

고 울고 웃다가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6.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지고 예뻐지는 사람입니다.

7.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8. 아내란 남편이 가는 길에 끝까지 남아주는 의리있는 친구인 사람입니다.

9. 아내란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살이 찌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10. 아내란 드라마 보다가 화병이 나도 남편과 아이들 잘못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11. 아내란 당장 잃어버린 1,000원에 안절부절 못해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12. 아내란 밥 한끼보다 "수고했네! 사랑해!" 한마디로 더 행복



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13. 아내란 내가 나이 한살 더 먹으면, 같이 한살 더 먹으며,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14. 아내란 아침에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15. 아내란 집안 일 반쯤 눈감고 내버려 뒀도 혼자서 다 해 놓는 사람입니다.

16. 아내란 너무 흔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몰처럼 매일 그 사랑을 마시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17. 아내란 가파르고 위태로운 정점이 아니라, 잔잔하게 펼쳐진 들녘같은 사람입니다.

18. 아내란 세상의 애인들이 탐하는 자리. 눈보라 몰아치고, 폭풍우 휘몰아치는 자리입니다.

19. 아내란 장마비에 흥수나고, 폭설에 무너져도, 묵묵히 견뎌내는 초인같은 사람입니다.

20. 아내란 가끔 멀리있는 여자를 생각하다가도 서둘러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21. 아내란 되돌아와 다시 마주보고 식탁에 앉는 사람입니다.

22. 아내란 티격태격 싸우고 토라졌다가도 다시 누그러져 나란히 누워 자는 사람입니다.

23. 아내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없이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24. 아내란 젊을이에게는 연인이고, 중년 남자에게는 반려자이고, 늙은이에게는 간호사인 사람입니다.

25. 아내란 남편이 저세상 가는 길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못다한 정 아파하며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26. 아내란 가족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27. 아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3. 아내란 평소엔 비싼걸 사고 싶다고 조르다가 정작에 사주려고 하면 거절하는 변덕스러운 여자입니다.

34. 아내란 남편이 눈여겨 봤던 운동화를 “그냥 오다 샀어!”라고 무심하게 던져주는 속 깊은 여자입니다.

35. 아내란 남편이 곁에 없을 땐 목이 빠져라 그리워하는 해바라기같은 여자입니다.

36. 아내란 강하고 자존심도 세지만, 남편 앞에선 영원히 18세 소녀입니다.

37. 아내란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고, 아주 작은 것에 큰 감동을 받는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38. 아내란 장마비에 흥수나고, 폭설에 넘어져도, 묵묵히 견뎌내는 초인같은 사람입니다.

39. 아내란 가파르고 위태로운 정점이 아니라, 잔잔하게 펼쳐진 들녘같은 사람입니다.

40. 아내란 행복의 제조자요 인도자입니다.

언제까지나 지칠 수 없고 지칠 것 같지 않던 아내에게도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에 에너지가 고갈되며 나약하고 힘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만능 아내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 한 사람뿐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포옹,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도 아내는 이 세상을 들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고, 아주 작은 것에 큰 감동을 받는 아내! 이런 소중한 사람을 평생토록 아끼며 사랑해줘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가꾸고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부가 언젠가는 하나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함시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암파낭종족

▲ 인구
약 3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100% 복음화율 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칼리만탄 동쪽에 위치하며 대부분 강 주변에 거주한다. 조상을 숭배하며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은 영혼이 유익한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집안 산당에서 조상을 부를 때 인간의 뼈 조각을 사용한다. 최근 외부 접촉을 통해 개방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기도제목
1. 암파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2. 변화와 개방의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미신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1) OT Exegesis Text : 2 Samuel 23:13-17

(2) NT Exegesis Text : 1 Thessalonians 4:13-18

(3) Thesis Topic : "From a reformed perspective, present a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and nurture of the Endemic Generation that have left the church."

(4) Sermon Text: (Choose One) O.T- Leviticus 16:1-10 "The Goat Sent Away into the wilderness to Azazel" N.T- John 12:27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to This Hour"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David Chu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29, 2025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29, 2025.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7, 2025).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Dates : May 26(Mon)~27(Tue), 2025
- Place :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5,26) through Rev. David Chun
-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Chun
Address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Cell : (856) 359-5345 E-mail : djchun5882@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잃어버린 드라마**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들어 내고 관심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내'가 누구에게 지워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잃어버림, 잊혀짐'은 곧 무관심이며 이 무관심은 사랑이 식었다거나 사랑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잊혀지거나 잃어버린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한 여자가 열 드라마가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있다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약혼자가 사랑의 선물로 준 소중한 열 드라마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런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배신이며 약속과 신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고자 했다.

당신은 혹시 이 드라마와 같이 당신의 소중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은

더 귀중한 생명임을 모른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라면,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꾸거

나눔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신의를 잃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사노라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피약별 밑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정신없이 일에 쫓기느라 너무나도 소중한

하고, 내 삶이 안으로 살찌게 하고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하나의 드라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켜서 들고, 온 집을 쫓면서 부지런히 찾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았다. 그리고 친한 벗들과 이웃을 불러서 같이 즐거워했다.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그리고 내 마음과 생활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묵은 먼지를 쓸어 내버리자.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자. 생명을 찾자. 사랑을 찾자. 믿음을



“어떤 여자가 열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쫓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눅 15:8)

이 열 드라마는 약혼자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표이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의와 자신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고

지 스스로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당신에게 있어서 이 드라마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이 당신의 생명이라면, 천하보다

나 살 수 없는 사랑을 잃은 채 미워하고 또 미움을 받는 건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라면, 천지만물의 대 주재인 하

가을은 오희백과가 무르익어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하고 있다. 가을은 잃어버린 걸 찾고 싶은 계절이다. 지난간 여름 무더위에 시달리며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이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자기 자신의 삶이 알알이 영글게

소망과 사랑을 찾자. 기도와 봉사와 인정을 찾자. 우정도 찾자.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이 가을에!!
sjkcdc@hanmail.net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왕건이다, 왕건!”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언제였나... 아주 까마득하게 제 기억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기억 속에서 지금 마음에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왕건이다.”

이 표현을 처음 들으면서 저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속어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표

현을 들을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신 분은 인격적으로 꽤나 괜찮다고 나름 인정을 받고 있던 분이어서 그 분의 이 표현을 속도있게 이해를 못하고 저는 고려태조 왕건의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은 고려태조 왕건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시 “왕건이 또 나왔네” 하며 아주 신나했습니다.

그제야 “왕건이 나왔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웃으며 그 분은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ㅎㅎㅎ 순진하신 우리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 음식을 먹다보니 진짜 있어 할 것이 눈을 찔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어렵사리 찾았다는 웃기는 말입니

다. 즉 ‘왕건’이라는 말에서 ‘왕’은 왕 같은 좀 커 보이는 것, 대단한 것을 뜻하고 ‘건’은 건더기의 준말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저는 그 때 신조어를 하나 터득했습니다. 그런 후로 가끔 신문이나 TV뉴스를 듣거나 드라마나 책을 읽다가 괜찮은 내용이나 사건들을 만나면 그럴 때마다 눈이 활짝 떠지며 속으로 “왕건이다” 하고 소리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오늘도 왕건이 걸렸습니다. 그 왕건은 다름 아닌 한예리라는 연예인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과 “현장에서 절실히, 열심히 한다. 같은 마음

으로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분의 이런 표현이 제게 왕건처럼 다가온 이유는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섬긴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어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름 절실히, 열심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살펴봐도 이것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감사가 없고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생각이 다가와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1)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

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갈 6:1-5).”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경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형 동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 형, C 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